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그 본래의 많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 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3월 23일 (토) 제 1723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미 교회성장 “부익부 빈익부” 현상

라이프웨이리서치, 담임목회자 1,000명 전화설문 결과 보도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는 성장, 부패, 회복 즉 부흥의 패턴을 따른다. 그런데 현재 미국 내 많은 교회들이 정체와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주류 개신교단뿐만 아니라, 남침례교회마저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과연 미국 교회는 하락세인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가 그 진위 문제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지난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미 전역에 산재한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벌였다. 교회 크기와 함께 2018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물어본 것이다(신뢰도 95%, 오차율 +/-3.2%). 그 결과 60%의 교회들은 정체 아니면 감소세를 보였고, 250명 이상의 중, 대형교회에서만 10%선에 머무르는 성장세를 보였다는 응답을 들었다 (Small, Struggling Congregations Fill U.S. Church Landscape).

이번 설문 조사를 진두지휘한 동 리서치 사무국장 스티브 맥코넬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미국 교회들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과거 미국 교회들이 경험했던 “개종이나 회심을 통한 급성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번 설문 결과는 미국 교회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설문에 응한 목회자 중 61%는 지난 3년 동안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고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거의 반절에 육박하는 46%의 목회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하락세 아니면 정체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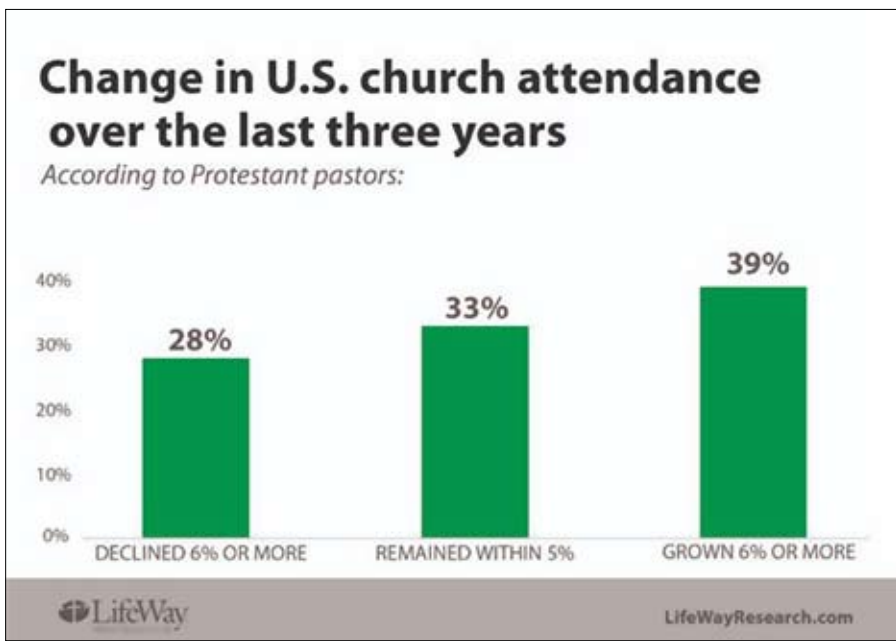
교회 목회자나 스텝진 현황 역시 교회 성장세에 영향을 받았다. 44%의 교회들에서 담임 목회자가 모든 것을 전담해야만 하는 처지였고, 87%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은 동일하거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또한 멀티 사이트 캠퍼스 확장이 3% 정도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교회 개척이란 이름으로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멀티 사이트 캠퍼스 사업이 32%였다. 따라서 교회 개척은 직간접적으로 12% 선에서만 이루어졌다.

교회 성장 척도가 이제 단순하게 교인들의 증가라는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을 이번 결과는 말해준다. 즉 중대형교회들의 생산과 증식 자체가 교회 성장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교회는 하락, 정체

250명 이상 대형교회만 10% 성장 수평이동 있지만 불신자 신앙입문 드물어



그리고 성장이라는 교차로에서 어느 길목에서 있는가?

28%의 목회자들은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주일예배 참석율이 6% 정도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다른 33%는 5% 안에서 정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9%는 2016년 상반기부터 최소한 6%가 성장했다고 응답했다.

성장했다고 응답한 교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주류 교단

들(34%)에 비해서 42%라는 상향 성장세를 보였다. 여기에 50명 미만 소형교회들의 성장세는 23%에 머문 반면, 250명 이상 대형교회들에서는 53% 즉 30% 정도의 격차를 벌일 정도의 성장이 이뤄졌다. 그리고 교단별로 보면 홀리네스(Holiness)가 56%, 남침례교단이 45%로 주류교단인 감리교회(33%)와 루터교회(25%)보다 성장에서 앞서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옷이 그 사람을 말한다!

CT, 성경 인물 등장 알리는 상징적인 요소, 옷 가짐에 따른 인물 성격, 신앙 소개

작가들은 관객이나 독자가 극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음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단서를 작품에 삽입한다. 만화에서 악당은 얼굴을 찌푸리고 결결한 목소리를 낸다. 반면, 영웅은 미소를 띠고 미국인처럼 말한다. 영화에서 위협적인 저음은 위험한 인물의 등장을 알리고, 희극적인 인물은 발랄한 멜로디와 함께 나타난다.

성경에서도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상징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옷” 즉 무엇을 입고 나타나는 가이다(You Shall Know Them by Their Clothes: What we learn about Bible figures from the clothing they put on, take off, and tear apart).

사무엘, 사울, 요나단, 다윗이 입을 옷에서 모시 예복, 왕권 박탈, 왕권 포기 등 의미

우리는 사무엘, 사울, 요나단,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골리

앗은 비늘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그래서 그는 뱀처럼, 심지어 용처럼 보인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민환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16면 인/태/류 이영희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서자격,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새롭게 선포되는 21세기의 천로역정”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저자 **김성국**

저자 김성국 목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유독 더 알차게 48시간처럼 살아간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복음보다 긴급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른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열고 기도와 묵상과 심방과 설교준비까지 빈틈없는 일과가 일상화된 루틴 같지만 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꿈 앞에 설레어 한다.

여러 언어의 민족이 각각 예배를 드리며 또한 연합으로 서로를 섬기는 다민족 예수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성도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를 즐겨 전하며, '어머니'란 말 앞에 늘 눈시울이 붉어진다.

매년 어린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매년 선한 것에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매년 '복음 앞에 오직 승리' 하는 전략가의 치밀함으로 그의 일상은 영성을 노래한다.

-편집자 주-

원저: 김성국 목사

동부개혁교회 신학교 학장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장

다빈치 TV 이사

(전) 해천대학 교의 담임목사

(전) 해천대학 교수 및 교육실장

총신대학교 (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Th.M)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D.Min)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 발행인 칼럼 ●

도시(都市)의 날개



김성국 목사
(린즈장로교회 담임)

맨해튼의 새벽은 몹시 분주하다. 누구와 이야기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이 달리기하듯 종종걸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맨해튼은 분주함으로 스스로의 새벽을 깨운다. 맨해튼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도시의 새벽 풍경은 비슷할 것이다. 새벽 분주함이 멈추면 아침의 부산함과 하루의 번잡함이 이

어진다. 이렇게 번거로이 도시를 오가는 이들의 꿈은 무엇일까? 이즈음 조용필의 "꿈"이 등장해야 한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높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해마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길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높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 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도시를 찾는 이의 꿈은 빌딩 속 한 초라한 골목에서 눈물을 먹고 마심으로 서서히 깨어진다. 하지만 아직 도시 자체의 꿈은 살아 있다. 도시는 경제와 정치, 사회와 교육, 예술과 과학 등의 씨줄과 날줄로 그 꿈을 엮어간다.

도시의 꿈은 유효(有效)하다. 물류와 지식의 소통 가운데 도시는 생산성을 높이고,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안전과 안락의 성을 쌓는 그 꿈 말이다. 하지만 도시가 간과(看過)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이다. 도시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교만의 죄, 멈출 수 없는 탐욕과 정욕의 죄를 도시의 화려한 벽지와 깔끔한 바다재(材)로 사용하였다. 도시는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심판을 예약한 셈이다.

이제 도시는 옛 꿈을 버리고 새 꿈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마천루(摩天樓)를 자랑하던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 도시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46:5).

하나님을 모신 도시는 다르다. 무엇보다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새벽의 풍경이 아주 다르다. 스스로의 분주한 새벽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그 새벽에도 기다린다. 그 자신은 뛰지 않고 "새벽 날개"를 펴서 비상(飛翔)한다(시139:9). 날아오르면서 환희의 아침을 맞는다. 그날에 다가오는 예측 못할 격동(激動)의 일들이 좌절의 이유가 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오름의 기회가 된다. 날개를 편 도시는 멀리 본다. 깊이 본다. 무엇이 지나가는 것이며 무엇이 머무르는 것인지 분별한다. 날개를 가진 도시를 대적할 세력은 없다. 그 위치부터 몇 수(手) 아래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날개는 피난처로서도 제격이다. 꿈을 가지고 도시로 몰려든 자의 통곡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자아내는 주님의 속삭임이 점점 커져 도시의 장엄한 노래가 된다. 하나님의 도시는 걷지 말고, 달리지 말고, 날아야 한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자명(自明)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만이 날개가 있다.

구속/속박에서 자유로운 리더가 돼야 한다

리더십저널, 리더들의 리더, 카슨 퓨 목사가 말하는 온전한 리더십 역량 발휘 위한 "자유롭기" 소개

카슨 퓨(Carson Pue) 목사는 국제애로우리더십미니스트리(Arrow Leadership Ministries)의 회장으로,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육하고 멘토링 하는 데 15년 이상을 헌신했으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들을 전해준다. 퓨 목사는 리더십수록, 어떠한 구속이나 속박에서 자유 해야만 온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말해준다:

용감한 해적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성 깊숙이 자리한 작은 감

옥에서 끌려 나왔다. 이 죄수의 발목에는 아주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다. 그는 족쇄의 무게로 인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마음먹은 대로 바로 움직일 수도, 빨리 걸을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리더가 자유롭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도 속박되어 있는 탓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기'이다.

과거에서 자유롭기

우리에게는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시켜주는 경험과 지도력을 '방해'하는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을 적절히 돌아보고 평가해보는 것은 리더가 인생 여정에서 어떤 부분에 얽매어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이런 사실에서 풀려남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는 리더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모든 리더는 시간을 내어 좋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경험을 잘 살펴봐야 하고, 그 경험이 리더로서 자신의 개발에 도움을 주는지, 장애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유롭기

권력은 강력한 마약이다. 권력은 우리를 유혹할 뿐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도 흐리게 만든다. 권력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 그것을 쥐고 있는 자를 속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부당한 행위를 합리화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 늘 정당하다고 믿는다.

특히나 사역자가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권력의 유혹을 받으면,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을 파멸시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도 파괴할 수 있다. 사람은 리더십을 갖게 되

기도의 자리 정하고 자유롭게 멤버들 사정 놓고 기도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 기대하도록...다른 제목도 기도

부모에게서 자유롭기

부모와의 관계가 리더의 지도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바니안 나무'는 가지가 넓고 뾰뾰하게 자라는 열대 나무로, 가지와 잎사귀가 뾰뾰하게 펼쳐져 있어 빗물도 뚫고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다. 따라서 그 나무 아래의 토양은 영양분을 잃게 된다. 이 예는 능력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묘사한다.

만약 부모가 능력 있는 검증된 리더라면 그들의 자녀인 청년 리더는 부모에 버금하거나 더 뛰어난 리더가 돼야 한다는 압박관념을 갖게 된다. 이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근거해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려면 부모에게 영적 성숙함과 절제가 필요하다.

악령의 사슬에서 자유롭기

중요한 위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부 크리스천 리더가 개인적인 영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여 있는 마음, 과거와 관련된 좋지 않은 기억을 반드시 고백하고 없애 버려야 한다.

C. S. 루이스의 소설 "스쿠루 테이프의 편"에 등장하는 악마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휴면'세포를 침투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한 청년 리더를 상상해본다. 그는 자신을 얽매고 있던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고 악한 영을 쫓아 버리려는 의지도 없이 사역을 한다. 악마는 이 시점에서 가능하면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얼른 '휴면상태'로 들어간다.

그 와중에 리더는 점점 성장해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리더는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악마는 그 사람의 사역에 어떤 열매도 열리지 않게 하거나 그의 영적 성장에 진전이 없게 하는 방식으로 그 정체를 드러낸다.

리더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전부 드러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는 곳에서 권력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상의 리더 뿐 아니라 크리스천 리더 역시 권력의 영향력을 조심해서 내가 사역하는 목적과 나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항상 명심해야 한다.

결국 리더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미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권력과 주도권 중독에서 자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k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미 교회성장 “부익부 빈익부” 현상



<1면에서 계속>
한편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 바로 개종이나 회심을 통한 교인 증가 현상인 거의 실종(?)됐다는 문제다. 2018년 한 해 동안 오직 10%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교인이 됐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5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단에 따라서도 개종을 통한 교인 증가는 격차가 벌어졌다.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100명당 10명 이상의 개종자가 가장 많은 교회는 오순절교회(57%)였다. 그리고 루터교회(39%), 율리네스(38%), 침례교회(35%)였다.

웃이 그 사람을 말한다

<1면에서 계속>

그러니 뺨 같이 생긴 골리앗이 숨이 끊어진 채 쓰러져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별로 놀라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린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모시 에봇을 입고” 있었다(삼상2:18). 조금 과하게 말하면, 어린 사무엘이 앞으로 제사장처럼 처신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해마다 “아들에게 작은 겂옷을 만들어서 가져다주었다”는 말을 듣는다(2:19). 상황이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들도 있다. 사무엘서 전체에서 그 웃은 사무엘의 예언자적 권위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사울을 책망하고 떠나는 사무엘을, 사울이 붙잡는 바람에 사무엘의 겂옷자락이 찢어졌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을 “찢어서” 다윗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다(15:27-28).

사무엘처럼, 사울도 왕의 권위를 (또는 그 권위의 결여를) 상징하는 웃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동굴 안에서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이려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대신에 다윗은 사울의 겂옷자락을 몰래 자른다(24:4-5). 겂옷으로 보면,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살려주는 착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독자로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사울의 왕국이 실제로 ‘잘려나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고, 결국엔 온 나라가 갈가리 찢어질 것임을 말이다(왕상11:30-32).

몇 가지 상징 표현은 좀 모호하다. 요나단이 자기 겂옷과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줄 때, 그는 웃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한다. 요나단은 왕좌의 상

속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어보게 하는 저 유명한 장면은 또 어떤가?

여러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자기 몸보다 큰 웃을 입은 아이에 관한 이



이야기로 그리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대조적인 것들이 암시되어 있다. 사울은 그 블레셋 용사, 골리앗과 똑같은 무기를 들고 있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사용한다. 사울은 열국의 왕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다윗은 목자처럼 보인다. 사울은 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왕권을 박탈당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웃을 벗게 되는 낯선 일들이 일어난다. 사울은 웃을 벗어버리고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채 드러누워 있었다(19:24). 마치 자신이 미쳤고 하나님

께 버림받았음을 보여주거라고 하듯이. 나중에는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세익스피어의 소설 리어 왕처럼 다른 사람으로 변장한다(28:8). 예언자로서의 기름 부음과 왕권이 사울에게서 사라졌고, 이제 그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임을 우리는 안다. 사울의 진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왔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웃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써서, 애도의 표식을 하고 있었다”(삼하1:2).

이 이야기들 모두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예언자의 겂옷과 제사장의 에봇과 왕의 갑옷을 모두 갖추어 입으실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의상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은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과 거룩한 권위를 나타내는 웃을 입으실 것이다(마14:36). 요나단처럼, 예수님은 친

구의 발을 씻기 위해 겂옷을 벗으실 것이다(요13:4). 다윗처럼, 예수님은 열국의 왕들을 비웃듯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어떤 무기도 들지 않고 홀로 싸우러 나가실 것이다. 사울처럼,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벗겨질 것이고, 원수와의 싸움터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울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무덤에는 그를 덮었던 웃만이 가지런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그의 웃차림에 관하여 들을 때,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웃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다(계1:13).

<2면에서 계속>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속박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며,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길 소망한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벧전 2:16).

시론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나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학교 총장)

내가 나와 내가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주관적인 나)과 남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객관적인 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각 차이를 별로 생각지 않고, 과대망상적인 자기도취에 빠져있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을 비하하고, 존재감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자기도취에 빠져 있거나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형무형의 상처를 입히면서 많은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드디어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이미 형성된 그 인간관계마저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케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러한 주관적 시각과 객관적 시각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각의 차이를 좁혀서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걸 맞는 솔직하고도 담백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삶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대 어느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가 지혜란 저울의 한쪽에 놓여 있는 추의 무게와 똑 같은 무게(due weight)를 다른 한쪽에 놓아서 그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했다. 대학시절 대학 영어교과서에 실린 이 글을 읽고 많은 감명과 깨달음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에게 가장 걸 맞는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며 자신 속에 잠복되어 있는 열등의식을 극복하게 된다.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과소하면서 남에게 우월대는 모습을 극복하게 해주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자기만족감도 생기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갖게 된다. 자기가 하는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껏 그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도 갖게 해준다. 자신감을 갖추지 못한 소심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 일을 두려워하다보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된다. 반면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것을 덤석 받아 일하다가 결국 그 일을 망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올바르게 구분한 다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과감하게 몰두하여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신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자신을 개발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멋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기위해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하여 부패하고 무능해져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구원해주시고 회복해주셨다.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씩 맡아 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나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의 능력을 가장 적절하게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과대망상에 빠지지도 말고, 열등의식에도 사로잡히지 말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므로 우리 각자는 절대적이면서도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셔서 나를 이렇게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를 향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쇠하지 않는 능력에 의 존하면서 나를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제40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USA

진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금번 제40회 총회는 알래스카에서 개최하기로 한바, 총대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총회!(살전2:4)

1. 총회 일시 : 주후 2019년 4월 23일(화) - 4월 26일(금) (3박 4일)
2. 총회 장소 : Alaska Inlet Tower Hotel (Tel:866-925-7881) 1020 W. 12th Ave. Anchorage AK, 99501
3. 숙 식 비 : 총회총대 1인당 회비 \$400불, 동행하시는 사모님은 free 입니다.
4. 디 파 지 : 호텔 예약 관계로 1인당 \$100불 디파지를 하셔야 합니다. Bank: Bank of Hope, Wire-Pay to the order: KPCUSA Account Number: 6400323826, Rev. Inseok Shin Address: 1046 4th Ave, Los Angeles CA 90019
5. 교통 안내 :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하셔서 호텔 차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6. 접 수 : 첫째날(4월 23일) 접수는 오후 4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6시부터, 개회예배는 오후 8시에 드립니다.
7. 기 타 :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총회장 : 한선희 목사 서기:정중섭 목사
40회 총회준비위원장 : 강인중 목사 서기:정중섭 목사
회계:신인석 목사

문의 준비위원장 : 강인중 목사(224-433-1537) kang4keya@gmail.com
준비위서기 : 정중섭 목사(714-380-0777) j2ksup@naver.com
준비위원회 : 신인석 목사(626-975-1248) arcadiahin@gmail.com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미스에스 메기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나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함을 받은 일이 있었다. 우리교회는 그동안 많은 기적 속에 교회의 확장을 이루어오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교회 건물이

축한 모든 부지가 있는 곳이 모두 땅 면적에 100프로를 지을 수 있는 조닝으로 바뀐 일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은 교회 옆에 들어선 장애인 센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 장애인 센터는 정부기관의 것인데 그 장애인 센터를 세우기 위하여 그 앞블럭 뒷블럭 그리고 옆블럭의 일부를 조닝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교회 부지가 다 그곳에 속하므로 다 100프로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그 장애인 센터를 지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미스에스 메기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것이다.

미스에스 메기는 우리교회에도 도움을 준 분이다. 우리교회가 교육관 부지가 필요하여 산상기도회를 3년이나 하고서 그분의 집 두 채를 구입하려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동안 구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교회당 앞 두 채의 집이 계약 후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었다. 그것도 너무 싸게 나온 것이었다.

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고심하다가 그 미스에스 메기의 집을 포기하고 교회당 앞에 나온 건물을 사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미스에스 메기의 집을 포기하면서 잃어버린 계약금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었다. 다 헌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 분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말했다. 나는 5년의 기회를 주면 반드시 그 때는 그 건물을 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오다 그리 스도인데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집 한 채를 반값에 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 분이 죽지 않기를 온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 분은 정확히 105살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교회는 그분의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분이 장애인 센터의 부지를 기증한 분이 아니라 마음에 뭉클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런 좋은 분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백살이 넘어 마지막 인생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선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행은 그녀가 생각지 못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센터에 땅을 기부해서 많은 장애인들을 돌보게 하고, 그 영향으로 그 지역의 조닝이 바뀌어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교회에도 자비하게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어 도움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나는 그 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나도 평생에 그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것이다. 꼭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 할 것이다”고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정준성 목사
(뉴욕 주사리장로교회)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을 하나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천국의 렌즈로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받으십시오.

관 속에 누워있는 저의 시신을 볼 때, 저를 어떤 목사였다고 회상하면 좋을까?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그리고 애 많이 쓴 목사’라고 기억된다면, 저의 죽음은 복된 죽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를 살기로 결심해도, 바쁘게 살다 보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까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이다”고 말씀합니다(전7:2).

레스에 참석하여 사별의 아픔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전7:3).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할까? 그러면, 언제까지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까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눈물이 마르게 하실 때까지 울어야 합니다. 한 달이 걸리든, 일 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슬픔을 이기지 못할까?’ 하며 나의 신앙에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슬픔을 이기지 못할까?’ 하며 남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별의 아픔 속에 있든, 다른 분이 사별의 아픔 속에 있든, 함께 울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전도서 7장 1-4절)

그러면 성도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으로 떠날 때,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성경은 ‘좋은 기쁨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낫다’고 답합니다(전7:1). 성도가 지니고 있는 자리에 금은보화가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가 지니고 있는 자리에 명예로운 이름이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가셨습니다. 조객들이 여러분의 천국환송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었다’고 회상할 것 같으세요?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지가 분명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가 떠날 자리에 명예로운 이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석하여 고인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볼 때마다 ‘나도 조금 있으면 여기에 눕는 거야’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나?’ 죽음을 직면할 때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묻게 됩니다. 잔치집에 갈 때를 연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로할 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 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날 자리에 명예로운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날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지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별의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까지 마음껏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사별의 아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장

john.junsong.jung@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부구 망우동 340-(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3,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5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7:0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98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원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이곡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05-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8-45 www.est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3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13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원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043)27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을 '피투(被投, Geworfenheit)'된 존재로 설명한다. 인간 개인의 존재를 '세상에 던져짐을 당한 것'으로 말한다. 왜 사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부모와 조국 인종 색깔 등을 스스로 선택하며 삶을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어났기에 살고 있고,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인생의 기계적인 단면을 잘 설명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마치 차가 달리는 것을 보며 이유와 목적을 묻지 않은 채, 그저 아직도 개스가 떨어지지 않

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코에서는 콧물이 흐를 것이고, 공부에 집중하기엔 이미 면역체계가 무너져 집중도 안 되고 약을 달고 지내야 할 것이다. 추위를 느끼기 전에 미리 보호하고 보완해야 함에도 부주의한 자녀들은 일이 닥칠 때까지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삶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간다 하여도 매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습니까?

일정한 질문과 점검
사막의 레이스에 도전하는 선수들 가운데, 갈증으로 인해 중도에 낙오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특이한

잘 지나가려면, 전기동력이 공급되면 무한정 움직이는 공장 기계 같은 삶을 멈추어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따라야 한다. '피투'된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수명이 다하기까지 기계가 돌아가듯이 삶의 쳇바퀴를 돌리며 살아가는 그 실존의 허무함을 벗어나야 한다. 분명 한 삶의 가치와 이유,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수단과 방법보다 본질 의식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반례 동물 장례식을 치러 달라는 요청이 많아졌다 한다. 천국에서도 그 강아지와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뉴욕의 어느 거

불행하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내 남편은 한 사람이라는 그 좋음을 의식하지 못할 때 인생은 온통 바가지 굵은 소리가 요란할 것이다. 그 가정은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는 원망하는 아내와 자식들로 가득할 것이다.

의식 없는 인생의 끝
의식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은 죽음으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짐승의 몸과 같이 허방함에 이를 따름이다. 한국의 이십대 청년 아이가 최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돈과 인기를 가졌음에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한 욕심을 쫓다가, 결국은 그렇게 목표하던 바로 그 돈 때문에 그와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허방의 결론의 자리에 들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 젊은 아이가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며 허룻밤에 1억 원짜리 술 메뉴를 제공하고, 이 메뉴가 그의 사업의 주된 성공 요인이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일일이 꼬박 꼬박 세금 내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속을 뒤집을 만한 이야기이다. 더불어 그렇게 정신없는 일을 벌이면서도 공중과 TV에 나와서는 젊은 사업가의 성공신화처럼 떠돌았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의식의 감각을 상실케 만든다. 쾌락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참된 기쁨은 가려버리고 결국은 허무함에 이르도록 의식만 마비시켜가는 것이다. 결국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대한 갈증뿐이다. 하나님이 설명하고 해석해주지 않는 그 삶은 마침내 허무함과 허방함에 빠지게 될 따름이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임에도,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 결국 그 영혼과 삶은 깊은 절망과 탄식에 귀착되고 말 것이다.

인생은 의미이다
검고 냄새나는 인도 땅의 저녁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2볼짜리 모포를 노숙자들에게 덮어주기 위해 선교사님들은 그 밤에 길을 나선다. 어둠 밤을 지나는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이것이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믿음만이 존재한다. <14면으로 계속>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삶의 행복은 의미와 해석

-세상속의 사명, 은혜를 의식함

왔기에 움직이고 달릴 수 있다는 말장난 같은 것에 불과하다. 삶의 단면은 설명하고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항해의 목적과 방향,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유를 묻지 않는 인생
사막 광야 같은 이민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무디어져 가는 것을 본다. 마치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몸이 고장 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갈 데까지 달려간다는 이들이 많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힘겹다는 이유로, 정작 왜 그렇게 바쁘고 힘겨워하면서도 살아내야 하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바쁜 세상 살이에서 한번 해치우고 지나가는 수준에 만족할 따름이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진지한 질문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자녀들이 추위를 별로 못 느끼는지 겨울에도 짧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때 주의를 주는 말이 있다. 네 몸이 추위를 느

것은 갈증에 물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리 물을 먹었어야 했는데, 갈증이 심각해질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옆에 마시다 만 물병을 든 채로 혼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 있고 훌륭한 선수들은 사막에서 물이 필요할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거리를 정해두고 일정하게 물을 마시면서 페이스 조절을 한다. 다른 세상의 일들도 그와 같은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 잠이 와야만 침대에 눕는 이들이 있다. 학습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잠이 오지 않으면 새벽까지 이런 저런 일 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의 멋대로 상태의 생활 모습이다. 결국, 일정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삶은 그 무엇을 하더라도 결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 짧고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리에서는 성탄절에 개 세례식을 베풀어준다고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거룩한 예식을 남용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 의식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동물도 훈련의 결과로 본능이지 결코 사람과 같은 영혼의 활동이 될 수는 없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에, 죽으면 그냥 몸이 땅에 썩어 없어진다.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모든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질문하며 살아야 한다. 나의 존재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마치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알려면, 자기를 열심히 연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서 답을 얻고자 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의 상태가 중요하다. 의식하지 못하는 삶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예수님의 명칭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보다 깊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오렌지카운티 부유혜

A: 질문이 5가지인 것 같습니다. 1)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수1:1, 수3:1에 나오는 여호수아(여호와는 구원자이다)라는 히브리 이름에 해당되는 헬라어로서 천사가 나타나 가르쳐 준 예수란 이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마1:21). 이 이름은 구약성경에서 예수를 예표한 2명의 잘 알려진 인물이 지녔던 이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그는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고 그들을 이끌고 거룩한 땅에 들어간 왕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호사다의 아들 여호수아로서 그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짚어준 위대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수3:1이하). 2)그리스도는 예수의 공적(Official) 명칭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이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은 자"에 해당한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필수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선지자는 단 한번 기름부음을 받은 기록 밖에 없다. 왕상 19:16). 기름부음에 사용된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했으며 기름부음 자체는 하나님의 신을 구별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삼상 10:1, 6, 10).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이미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눅1:35) 특히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의 공적 명칭...

그가 세례 받으실 때 발생했습니다(마3:16-17).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구비해 주었습니다.

3)인자란 칭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이 이름을 40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명칭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니다. 이 이름은 원래 구약 단7:13에 유래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한마디로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여 그의 수난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의 신성 특히 선재성(先在性)과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그의 재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4)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사용되었고(출4:22, 호11:1) 다윗 가문의 약속된 왕으로 사용되고(삼하7:14) 천사들에게(욥1:6, 38:7, 시29:1) 그리고 경건한 사람에게 사용되었습니다(창6:2, 시73:15). 신약성경에서는 이 칭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고(마11:27, 14:28-33), 예수님의 사명과 업무, 삼위일체의 제 2위인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름이 사용된 가운데 가장 심오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인성을 가지셨으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심을 의미합니다.

5)주는 구약에서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좀 더 폭 넓게 사용되어 주인 혹은 극히 존경하는 선생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때에는 특별히 그의 부활 후 그 영화로우심과 권위로운 삼존주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칭호의 번역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나이지리아의 부타-닝기(BUTA-NINGI)



'부타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부타족은 나이지리아의 바우치 지방의 닝기(Ningi) 고원에서 약 25,000인구의 작은 소수민족이다. 일부는 카노 지방에 흩어져 있기도 하다. 부라(Burra)는 그들의 수도이며 부타와 민족은 많은 세대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기 위해 그곳으로 올라갔다. 현재 그들의 언어 닝가와(Ningawa)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하우사족의 언어가 대다수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들은 현재 지배적인 하우사 언어로 배우고 있다. 문화, 정치, 지리적인 면에서 부타와는 와르지(Warji)와 아파와(Afawa)족들과 비슷하고, 종교적으로는 강력한 이웃인 무슬림 종교를 가진 하우사(Hausa)족과 카누리(Kanuri)종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왔다. 때문에 근처에 공립 중등학교가 있지만 부타와는 그들의 자녀들을 이슬람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부타와는 또한 하우사(Hausa)의 관습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연례 축제와 그들의 의복 양식 등에서 일면이 보여진다. 일부는 그러한 적응을 추구하며 부타와 민족이 구별된 민족

으로 존재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부타와는 농사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니아(Guinea) 옥수수와 기장은 그들의 주산물이다. 일부 부타와는 양, 염소, 소와 같은 동물을 키운다. 풀라니(Fulani)족에서 나온 유목민들은 종종 부타와를 위해 동물들을 돌봐준다. 부타와는 또한 사냥, 낚시 특별한 경우에는 하우사족의 영향으로 무역 거래에 종사한다. 일부 부타와는 이발사나 대장장이가 되기도 한다. 부타와는 약효가 있는 허브에 대한 그들의 지식으로 유명해진 이래로 일부는 허브학자가 되기도 한다. 제례 의식의 집도인이나 연주자와 같이 제례의식에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도 그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타와의 결혼은 보통 맞고

환에 의해 이뤄진다. 한 씨족의 신부는 또 다른 씨족과 결혼하고 그 씨족은 순서에 따라 친인척들 중의 한 명의 신부를 첫 번째 씨족에게 결혼 시킨다. 만약 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때때로 신부비(신부의 부족에게 선물)를 지불하게 된다. 이혼은 찾아보기 어렵고 젊은 연인들 사이에 구혼·연애 같은 것은 없다.

아기를 낳은 후에 어머니는 며칠 동안 격리되고 이후에는 어머니는 그녀의 오두막집 앞에서 그녀의 아이와 목계 된다. 그러면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친구들로부터 축하인사를 받는다. 아이에게는 조상의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주어진다.

소년들의 입적 의식은 부타와에게 매우 중요하다. 7살이 넘는 소년들은 할례를 받기 위해 숲의 신성한 장소로 가게 된다. 두달 동안 그들은 마

을사람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올 때 빼고는 격리돼 이 시간동안 "도도"(선조의 이미지로 마스크를 쓴)의 도움으로 부족의 비밀들에 대해 배우며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설득되고 그들의 아버지나 형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부타와는 몇 개의 문화적 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은 오늘날 여전히 그들의 축제로 즐긴다. "과르마 곴(Gwarma Gom)"이라는 축제는 매년 1월에 신계 드리는 감사제이고 이 기간 동안 부타와는 새로운 노래를 지어 부른다. 2년마다 열리는 애도의 날은 죽은 사람들을 기린다. 그들은 무덤과 제단을 찾아가서 피를 뿌리고 도도는 대중 앞에서 춤을 춘다. 또 젊은이들이 그들의 강함과 힘을 내보이기 위해 춤추는 청년 페스티벌도 있다.

신앙

최근 부타와는 그들의 종교로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전체 부타와 절반 이하는 여전히 전통 민족 신앙을 따른다. 그들은 가족신과 조상들을 마을 무덤에서 또는 숲과 바위에 숨겨진 비밀장소에서 예배한다.

도도의 제례의식은 부타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은 부족의 비밀과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종교적인 전통행사에 가치를 둔다. 부타와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동물 특히 코끼리로 탈바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타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료들은 전무하고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없다. 그들 대다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인권보고서 북한에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삭제

미국 정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삭제했다. 하



미 국무부는 13일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놓으면서 2017년 보고서에 있었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문구를 뺐다. 북한의 아카데미인 인권 문제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북한 인권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와 관련해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인', '정부 주도의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 구금' 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삭제했지만 열악한 인권 상황에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 인권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거론하지 않고 언론 보도, 인권단체의 보고서, 탈북민들의 주장 등을 간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피해갔다. 보고서는 2012-2016년 북한에서 340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고 전기 충격, 물고문, 극심한 폭행 등의 방식으로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언론 보도나 연구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엄마에게 영아살해를 강요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와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이뤄지는 잔혹한 인권침해 실태도 언론 보도 인용 방식으로 언급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웹버 사건도 거론하지 않았다. 납치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의 반박 입장도 이례적으로 포함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국무부는 한국 관련 인권보고서에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민들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비판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것(북한 비핵화)이 갈 길이 먼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원하고, 그가 그 (비핵화)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한다는 데에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보기관 총책임자인 덴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달 중 방한한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코츠 국장의 방한 일정을 한·미 정보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가 민감할 때 방한해 왔던 코츠 국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이뤄지는 이번 방한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할 것

로 보인다.

뉴질랜드서 추기년사로 40명 사망...이민자 중요범죄

뉴질랜드 남섬의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의 이슬람 사원(모스크) 2곳에서 15일 국우 테러범들의 추기년사로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 테러범들 중 1명은 범행 현장 장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17분간 생중계한 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가까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뉴질랜드 헤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충격은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알 누르 사원과 인근 마스지드 모스크에서 발생했다. 알 누르 사원에서 30명이 사망했고, 마스지드 모스크에서 10명이 사망했다.

자신을 호주 출신의 브랜든 테러트(28)라고 소개한 테러범이 알 누르 사원에서 범행 순간을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중계했는데, 헬멧에 부착한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사람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들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 테러범은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있던 사람을 쏘기 시작해 사원 안에서 무작위적으로 충격을 가한다. 충격 후 모스크를 빠져나온 테러범은 차에 오르면서 "겨냥할 시간이 없었다. 타겟이 너무 많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테러범은 페이스북에 테러의 이유를 밝히는 선언문을 남기기도 했다. 반무슬림, 반유색 인종에 대한 주장으로 가득찬 이 선언문에서 테러범은 "우리의 땅이 침략자들(이민자들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격하기로 했다"면서 "달린 루프를 포함해 많은 사람에 대한 글을 읽었지만 베링 브레이크로부터 진짜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루프는 2015년 미국 흑인 교회에 침입해 9명을 총기로 살해했으며, 브레이크는 2011년 노르웨이 집권 노동당의 청소년 캠프에서 총기를 난사해 모두 77명을 숨지게 했다.

호주인인 그가 뉴질랜드에서 테러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침략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훈련하는 동안 잠시 살기 위해 뉴질랜드에 왔다"면서 "뉴질랜드에도 서구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물(이민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을 용의자로 간주하고 구금한 상태다. 테러도 체포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차량에 부착된 폭발물 2개를 발견해 해체했다. 경찰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 퍼져간 이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참담한 날 중 하나가 됐다"면서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오늘 테러 공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뉴질랜드를 집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에티오피아항공 탑승한 목사 참변

노르만 텐디스 세계교회협의회(WCC) '생명

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 고문이 지난 10일 추락한 에티오피아항공 ET302편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했다.



오스트리아 루터교 소속 목사인 텐디스 고문은 이튿날 케냐에서 개막한 UN 환경총회에서 생명 경제와 생태 정의 구현을 위한 세계 교회의 활동 계획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었다.

사고 소식을 접한 WCC는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추모예배를 드렸다.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WCC 총무는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모든 이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무엇보다 생명 경제와 생태 정의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동료 노먼 텐디스 목사에게 특별한 애도를 전한다"고 전했다. 그는 "남은 이들이 그의 유지를 따라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역을 이어가자"고 했다.

'침묵하는 트럼프-몸 낮은 폼페이오' 美 입단 신통도

미국은 핵·미사일 실험 재개까지 언급하며 '벼랑 끝 전술'을 다시 구사하는 북한에 대해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도 감추지 못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을 할 의향이 없는 상태"라고 17일 뉴욕 지역 라디오 AM970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그들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도움이 안 되는 발표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협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그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기를 바란다. 그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북·미 두 협상 틀을 외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북·미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답신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는 꺼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도 북한 관련 메시지를 올리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5일 "최 부상은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상은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모습이다. 이어 "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계속 대화하길 기대한다. 그는 북한이 지명한 나의 카운터파트"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재개

압박에 대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최 부상이 자신과 불된 보좌관을 꼭 집어 '비타협적 요구'를 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 "그 부분은 틀렸다"면서 "나와 김영철의 관계는 프로페셔널하며 우리는 세부적인 대화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제재 완화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기준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치켜세운 최 부상은 언급으로만 보면 북한은 북·미 갈등 역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톱다운 방식의 갈등 해결 시도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두 정상 이기투합한다면 단번에 문제가 풀리겠지만, 감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지도자들의 결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주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에 경고사격을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이제 공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미 협상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북한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보도했다.

IS 성노예 여성들, 탈출 뒤 부르카 불태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한 여성이 "IS 대원을 불태우고 싶다"고 분노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IS에 납치돼 성을 착취당한 이라크 야지디족 한 여성이 '부르카'를 벗어 불태우며 이같이 말했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식으로 얼굴을 모두 가리고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이다. IS는 여성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며 이 옷을 입혔다.

최근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이 공개한 영상에는 IS에서 탈출해 자유의 몸이 된 야지디족 여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SDF의 도움으로 IS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육포된 부르카를 벗어 던진 뒤 불태웠다. 이스라엘(20)씨는 "IS 대원들이 부르카를 강제로 입혔다. 숨이 막혔다"며 "입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입었다. 모든 여성은 부르카를 입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 드디어 IS로부터 벗어났다. 부르카를 벗어 불태웠다"며 "IS 대원들을 데려와 부르카처럼 불태우고 싶다"고 분노했다.

IS는 지난해 8월 이라크 신자르 야지디족 마을을 공격했다. IS는 이들을 사탄이라고 생각했다. 야지디족이 기독교, 이슬람,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혼합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S 공격으로 이 마을 성인 남성들은 모두 살해돼 매장됐다. 남성 아이들은 풍둔을 받고 팔려갔으며, 남성 청소년들은 IS 대원으로 훈련시켰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 6500여명은 모두 성노예가 됐다.

마리아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모두 4명 등장한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 이들 중 매우 극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우리는 성탄절과 고난주간에 마리아의 삶을 묵상한다.

어린 처녀의 몸에 성령을 통해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해야 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매우 영광스런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갑자기 불행과 위협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밀어닥친 것이었다. 나아가서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현장에서 그 처참한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운명 전에 요한에게 친히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 후로 마리아는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진다. 성경이 그녀의 삶이나 활동에 대하여 침묵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로마가톨릭교회에서 마리아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지만 지난 2천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마리아신학이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마리아의 원죄를 부정하는 교리가 발전하였다. 그 후,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유일한 중재자로 받아들이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이단적 신학으로 변질되었다. 다행히 16세기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마리아신학의 위치가 두 갈래로 현저하게 나뉘어졌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따르는 전통은 마리아를 성경에 기록된 이상의 인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로마가톨릭교회의 정체성을 논할 때에 마리아 교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12세기 이후 중세교회가 성모숭배 신학의 확고한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이 문제를 놓고 431년에 소집된 에베소 공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으며 그 후 451년에 채택된 칼케돈 신경을 통해 교회가 공식적인 칭호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지존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의 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마리아신학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진행되던 기독교 논쟁을 중심으로 등장한 이단을 배격하기 위하여 칼케돈 신경이 채택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네스토리우스파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하여 인성과 신성

그러나 8세기가 되어 마리아의 중재자 개념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크레테의 안드레(Andrew of Crete, 660-740)는 마리아의 영원한 순결성을 주장하면서, 창조주의 어머니로서 율법과 은혜 사이의 중재자라고 소개하였다. 심지어 마리아의 위치를 크게 부상시키며 만물이 그녀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죄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누가복음 1장 42절에 기록된 내용, 즉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모든 여자들보다

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녀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녀를 우상화하는 일이라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 안에서 마리아신학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탁발수도회를 창설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Francis of Assisi, 1181-1226)가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마리아의 사랑

역시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전통이라고 믿었다. 나아가서 보나벤투라라는 올리비아를 그리스도와 유사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마리아의 역할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리아는 신성과 인성의 연결고리이다. 나아가서 그녀의 삶 전체가 모든 죄인이 따라야 할 대적인 모범으로 교회에게 주어졌다.

두스 스코투스(Doms Scotus, 1265-1308)는 스콜라신학을 발전시킨 장본인으로서, 마리아의 무오 상태를 중심한 마리아신학을 교회에 정착시킨 인물이다. 그는 마리아의 무오 상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보편성을 더욱 확고히 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마리아가 모두 동질성을 지니고 존재하는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는 원죄를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긴 결과, 즉 하나님께서 죄를 선언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아래서 마리아를 죄로부터 면제하신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은 것이 맞다면 마리아는 원죄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도 옳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는 죄의 결과인 죽음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과 승천하였다고 결론지었다.

흥미로운 것은 스코투스의 논증이 중세교회 전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마리아신학은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었고,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중세교회가 마감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로마가톨릭교회는 마리아신학을 더욱 발전시켜왔으며, 현재 마리아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오직 그리스도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가톨릭교회의 마리아신학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현재 그들은 마리아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받으셔야 할 지위를 그녀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리아신학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는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영광, 권세 그리고 구속 사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오류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심지어 그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마리아를 신격화 하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이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30)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 연합된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게 된 것은 마리아를 높히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도리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가톨릭교회는 칼케돈 신경이 마리아의 신적 모성 교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마리아의 사역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중재자' 개념이 시작되었다. 마리아의 처녀성에 대하여 주로 하와와 비교되었다. 하와는 유혹에

복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경배의 대상으로 부상된 것이다.

마리아 신학

중세교회를 통과하면서 마리아신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마리아에 대한 관심은 주로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서방교회에서도 11세기에 들어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

을 더욱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마리아가 처해 있었던 궁핍한 상황 또는 그녀가 가난한 선택한 것에 대한 존경심이 자극되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코는 마리아의 신분적 위대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녀를 구원의 중재자 그리고 협력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마리아신학을 구축하였다.

프란시스코를 이어 그의 제자인 파두아의 안토니(Anthony of Padua, 1195-1231)에 의해 마리아신학이 발전되었다. 안토니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난 사실이 사도들에 의해

초대교부부터 시작된 성모숭배신학, 12세기 이후 확고한 틀 마련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영광, 권세, 구속사역 공유로 우상숭배 화

빠져 죄를 지어 부패된 몸으로 가인을 낳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순결성이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구원 역사의 중심적인 인물로 서서히 부상된 것이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모두 마리아의 무오를 주장하였을까? 아니다.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을 발전시켰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부 어거스틴은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었다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격하였다. 그 결과 마리아신학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였다.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 1090-1153)는 오직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올라갈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버나드는 마리아를 영적 통로로 이해하였지만 초대교회 이후 내려오던 그녀의 무오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어거스틴의 신학적 전통에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버나드는 마리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매우 특별한 역할에 국한할 것을 중용하였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마리아가 무오하

진해진 정설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 교리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기에, 당연히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같이 마리아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보나벤투라(Bonaventura, 1221-1274)의 이전까지 소개된 마리아신학의 전통 속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그녀는 무오 중에 잉태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마리아의 승천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48 individual church listings, each including a photo of the pastor, church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listings are organized in a grid format.

성경도 신앙 (74)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 제일교회)

이다. 우리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 자신이 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듯 바울도 동일하게 말한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12:17).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개인들과 관계하고 있는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다루고 있다. 결론은 개인은 어떤 경우라도 그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다.

(3) 반전론의 오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그 원수를 필연적으로 미워해야 한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는가?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단정이다. 예를 들어 세계 2차 대전에서 싸웠던 영국군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의 군인들 하나하나를 다 개인적으로 미워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사실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한 원리를 위해 싸우면서도 자기와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이 눈멀어 상태를 불쌍히 여기며 무지나 죄악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전론자들이 살인적인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로렘나무 아래서 위로해 주시네!

참고 성경: 왕상 17-22장

세월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한 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어 내일을 준비하신다. 삼년동안 가뭄에 고통당하나 아합이 숨은 엘리야를 찾아내 죽이려 혈안이다. 갈멜산에서의 바알선지자 450+아세라 선지자 400과 엘리야의 제단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누가 참 신인가 대결을 벌인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활으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와 하나님이다 앞드려 말한다. 엘리야가 명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니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나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 광야로 도망가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한하고 누워 자니 하나님의 사자가 음식을 주니 사십일 주야를 걸어 호렘 산에 이르러 굴에 유한다. 나 혼자 남았다 실의에 빠진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식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을 남기셨다 위로하시며 사명을 주신다. 회개하는 척만 해도 징계의 무게를 덜어 주시는 기막힌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 웨스턴 활극처럼 혼자 바알 선지자 450을 시원히 물리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 로렘나무에 앉아 죽기를 한하는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어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생각합니다.

그리 널브러져 지쳐 탈진한 엘리야를 계속 자상히 챙겨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도 따뜻합니다. 엘리야야. 힘들었어? 일어나 뭘 좀 먹으려마. 그 따뜻한 음식이 그 손길이 만져지듯 합니다. 홀로 남겨진 듯 외로운 싸움을 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루터기들을 남겨 두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왜 그 모양이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은 쉬운데 신앙인들도 실리 앞에선 하나님보다 실리를 손드는 게 현실입니다.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본을 따라 전쟁을 피하고 영토를 확장기 위해 아무리 같은 형제나라라도 우상 숭배자와 손잡는 것도 모자라 아들을 결혼시킴은 한 다리는 하나님,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양 다리 걸친 이들의 세상도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못한 비극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드리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지켜 주소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heenlee55@hanmail.net

반전론은 성경원리에 위배...개인이나 국가에 관한 것은 분별해야 악으로 악 갚지 말라...개인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취할 권리 없어

리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는 순간 우리도 다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며 우리는 그 의무에 대해 분별해야 한다.

(1) 반전론의 주장

반전론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국가 내에 모반이나 혁명이 있을 때의 경우와 같다. 청교도 시대의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러했다. 모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국가가 혁명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런 싸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경우인가? 형벌의 형식으로 죽음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님을 확증할 수 있다. 반전론자들은 어느 국가든지 그 어떤 전쟁도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속한 나라들에게 전쟁은 항상 악하다고 설득하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반전론은 주저함 없이 '국가 전쟁에 돌입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어떤 개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렇게 전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2) 반전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

이런 반전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제의 악수도 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는 경우들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전쟁하며, 어떤 사람들을 죽이라고 계속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 어떤 경우들에서는 전체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명하기도 하신다. 이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원수들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고, 그 때문에 그는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그런 수고에 복을 주셨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디에서 매복해야 할지까지 가르쳐

주셨다. 반전론자들은 구약성경에서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과연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를 정확무오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등하게 간주하고 있을까? 만일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는 자기의 반론을 철회해야 한다.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순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셨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여러 책들을 인용하셨다.

신약성경에서 군대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을 때 '너희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백부장들이 주님께 나온 경우들을 보라. 주님께서서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너희가 이제 나를 믿게 되었으니 군인으로서의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말씀을 한 적이 없고 다만 복을 명하셨다.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식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편 뺏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전체 원리가 십계명의 경우처럼 산상설교도 개인들에 관한 것이지,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

때가 있다. 자기들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억압적이고 살인적이며 증오로 가득 찬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그들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논증을 펼친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과 그 지도자들 중에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한 반전론자의 죽으심도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반전론자들이 자기들의 논증을 위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주님이 죽으신 여러 이유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 죽으심은 독특한 죽으심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자기들의 반전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위한 주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의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비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주님을 죄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불의를 주님께 담당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책역으로 주님을 때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반전론자들의 논증 속에는 그런 점이 결코 고려되지 않는다. 그들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도덕의 희생자로 유추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뉴욕벡렐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김경호),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8)7406-7577, www.nyantioch.com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 토요일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786-4040, www.kapca.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예배: 오후 1:30 Tel: (718)672-1150, www.kcany.org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거룩한 낭비(浪費)

충남 논산에 소재한 건양대 학교 앞에 다문화·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센터가 준비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유학생이 800여 명이나 되었지만 사드로 촉발된 한중갈등의 여파에다 혐한(嫌韓) 감정까지 더해져 이제는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 유학생이 빠진 자리를 베트남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이 대신하고 있어 이제는 유학생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문화·다민족으로 바뀌어가는 듯하다. 쉬운 선교가 없듯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에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재정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모든 정황을 살펴 줄 인적자원도 필요하다.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표시는 나지 않는데 필요는 점점 더 커지기도 한다. 특별히 한국의 지방대학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의 지원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보기도 심하게 딱한 학생들도 많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는 그나마 유학을 지속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까닭이다. 중국유학생들과는 관계(關係-판시)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도 무엇인가를 도와주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다. 관계를 맺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좋은 방법은 만국공통으로 무엇을 같이 먹는 것이다. 식탁의 교제는 그래서 필요하다. 선교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10에 1을 더하여 2라는 플러스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100, 1000, 10,000을 투자하여 잘해야 하나를 건질 수도 있는 것이 선교인 것이다. 그러니 밀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허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당연시 할 수 있

어야 선교가 된다.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에 천하보다 더 귀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월절 옛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을 팔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요12:1-8). 삼백 데나리온은 아주 큰 돈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순전한 향유의 가치가 노동자가 땀을 흘리며 300일을 수고한 대가만큼 큰 돈이다. 이를 두고 유다는 왜 헛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을 팔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단 하나의 성도를 대상으로 십 년이 넘게 목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낭비로 볼 수는 없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 울었다보다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운 소쩍새의 바람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이다. 설혹 그것을 낭비라고 표현해야 한다면 거기에 ‘거룩한’으로 수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선교는 밀 빠진 독에 물을 부어 그 밀 빠진 독에서 자라는 콩나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확신하는 것이 선교며 선교는 거룩한 낭비이기에 삼백 데나리온의 가치마저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부을 수 있어야 한다. 논산에 세워질 선교동원마중물 센터도 그런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hanmac@cmi153.org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회장 안총기 목사...매달 월요모임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정기총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안총기 목사) 정기총회가 12일 오전 10시30분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안총기 목사 사회와 노재룡 목사 기도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총무 김시온 목사가 행사보고와 재정보고를 했다. 이어 임원선거 시간을 가졌는데 각 지방회에서 추천으로 안총기 목사(남서부지방회, 임

마누엘선교교회)가 회장에 신동수 목사(LA동지방회, 로고스교회)가 총무로 선출됐으며 선출됐으며 부회장은 후보자 선정이 안 돼 다음 월례회 때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안총기 목사는 “많이 도와주시고 2019년 회기동안 하나님께서 모인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되길 바라며 섬기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남가주 교역자회는 작년한해

목회자 친선과 격려를 위해 기도회를 주관해왔으며 목회자 탁구대회, 목회자수련회, 성결인체육대회 등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안건토의에서 그동안 가졌던 화요일 모임을 월요일 모임으로, 격월모임에서 매달 모임으로 결의했다. 총회 전 열린 1부 예배는 김시온 목사(본회 총무, 웅기장이교회) 사회로 열려 한천영 목사(LA지방회장, 갈릴리선교교회)가 기도했으며 김신일 목사(남서부지방회장, 유니온교회)가 성경봉독을 한 뒤 이어 안총기 목사(회장, 한사랑교회)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마7: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이정석 목사(LA동지방회, 면류관교회)가 △교단과 지교회들을 위하여 △목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 의 복음화를 위하여 제목으로 함성기도 했으며 신원철 목사(성광회 회장, 제일성결교회 원로)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연합감리교 남가주여선교회연합회 주최 선교찬양제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드러지는 찬양이 어두운 세상에 전파되길” KUMC 2019 남가주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성황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연합회(회장 이정숙) 주최 제 30회 선교찬양제가 17일 오후 4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자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정숙 회장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며 “해마다 17개 이상의 교회 여선교회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선교찬양제에 협력해주신 회원여러분들과 기도후원해주신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드러지는 찬양이 더 높고, 더 멀리 퍼져서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에 전파되길 소망하며 사랑의 주님께 감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임호경 음악부장과 수 김 통신서기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제는 △나성금관(담임 이석부 목사, 지휘 이진남) △로스펠리즈(담임 신병욱 목사 지휘 엠버김) △벤나이스(담임 안정섭 목사, 지휘 서군희) △옥스나드(담임 남재현 목사, 지휘 서지혜) △연약(담임 구진모 목사, 지휘 조혜영) △벨리(담임 류재덕 목사, 지휘 김미선) △토크(담임 강현중 목사) △은혜의강(지휘 홍종걸 목사, 지휘 한유니스) △은혜 & 크레센타

벨리 연합(담임 한진호, 김용근 목사, 지휘 백정아) △남가주주님(담임 김낙인 목사, 지휘 이선경) △시온(담임 오경환 목사, 지휘 이소영) △드림(담임 정영희 목사, 지휘 김유선) △LA(담임 이창민 목사, 지휘 이지연), 라팔마(담임 김도민 목사, 지휘 김미라) △LA복음(담임 김호용 목사, 지휘 이윤정) △샌디에고(담임 이성현 목사, 지휘 조정희) △월서(담임 신영자 목사, 지휘 이미숙)가 참가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특별순서로 본연합회 현 임원과 역대 총회장들이 플래시몹 공연을 했다. 한편 찬양제가 열리기전 이 정숙 회장 사회와 월서교회 예배 무용팀의 워싱턴으로 시작된 예배는 김영희 선교부장이 여선교회 목적문을 이날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낭독했으며 남가주여선교회 사역동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헌금시간을 가졌는데 목회자부부찬양팀이 헌금특송했다. 이날 걷어진 헌금은 전도부인 사역을 위해 쓰여진다. 이날 찬양제는 오경환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후 축도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에서 열린 우드베리의 이슬람 선교신학. 북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우드베리의 이슬람 선교신학’ 미주장신 북콘서트, 김일권 교수 저서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북콘서트를 13일 오후 12시 20분 본교 채플실에서 김일권 교수(선교학)의 저서 ‘우드베리의 이슬람 선교신학’에 대해 가졌다. 이상명 총장 축사에 이어 김일권 교수가 ‘우드베리의 이슬

람 선교신학’에 대해 설명했다. 김일권 교수는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17년간 사역했고 지난 1992년 오웬선교회에 합류했으며 국제오웬선교회 대표로 사역한 것을 바탕으로 윌리엄 캐리대학교에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게 됐다”며 “어떤 주제로

논문을 연구할까 고민하다 이슬람학자 우드베리 교수에 대해 연구하게 됐다. 우드베리 교수는 로잔선교위원회에서 전세계 이슬람선교에 대해 자문을 받는 분이며 이슬람선교 방향 제시하는 분”이라 말했다. 김 교수는 “우드베리 교수에 대한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게 됐다. 이 책은 선교사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이 사용될 책”이라 자랑했다. 그는 1장부터 7장까지를 설명했으며 설명을 마친 후 학생 처장 김루민 교수와 전 서북교회 담임이자 성경속 왕조실록 저자인 배경락 목사가 서평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서정운 목사의 축복기도로 북콘서트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상식 및 LA카운티와 한인 리더스 그룹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수상식을 마친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LA카운티와 한인 리더스 그룹 간담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상식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상식 및 LA카운티와 한인 리더스 그룹 간담회가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 주최로 11일 정오 LA다운타운에 위치한 밀레니엄 빌드모어에서 열렸다. 이날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한

인사회 및 주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심필하 미주한인재단 OC 회장 사회로 열린 시상식에서 이회법 평창 조직위원장의 감사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미주후원회의 홍명기 대표회장과 이병만 회장, 김왕기 수석부회장, 김영민 세계홍보담당자, 로라전 LA한인회장, 미셀라 스티오렌 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에게 전달됐다. 또한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홍명기 대표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상식을 마친 후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LA동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이병만 회장은 “지난 2월 27일에 열렸던 미주 제1차 평화통일 원탁회의를 마치고 보니 우리 동포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박영남 목사(광복회 미서남부지회장)은 “11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인 이민사회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지혜를 모으고 독립정신을 살려 한인사회가 주류사회로 갈수 있는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캐서린 바거 LA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 한인 이민자들이 어떤 협력을 하길 원하는가? △LA카운티 한인들이 어떤 분야에서 LA카운티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한인들이 LA카운티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떤 힘을 보탬 수 있는가? △LA카운티가 소유한 국유지를 한인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개발시켜줄 수 있는가? △5명의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한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전달할 수 있는 자들을 추천해주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주제의 안건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노회장 채왕규 목사, 부노회장 이철희 목사 KAPC필라노회 제87회 정기노회, 임원 자격 개정 등 결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델피아노회 제87회 정기노회가 3월 12일 오전 10시 뉴비전교회(채왕규 목사)에서 열렸다. 공천부에 의해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채왕규 목사(뉴비전교회) △부노회장 이철희 목사(참된교회), 장로 부노회장 김요셉 장로(영생장로교회) △서기 백운영 목사(영생장로교회) △부서기 이병은 목사(내

백성교회) △부서기(영어권) 박반석 목사(백스카운티장로교회) △회의록서기 김성준 목사(사랑의 교회) △부회록서기 배현기 목사(삼일교회) △회계권회주 장로 △재정감사 김요셉 장로, 장로상 목사, 회무 처리는 노회장 장덕상 목사의 사회로 목사 회원 38명과 장로 회원 4명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규칙 개정을 통해 임원은 △본 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7년 이상 된 자로 노회의 특성과 지 교회들의 형편을 익히 아는 자 △목사 안수 후 사역경력 10년 이상 된 자로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16면으로 계속)



KAPC필라노회 제87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목회자 및 평신도리더를 위한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주관하고 동부개척장로회 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리더를 위한 세미나가 3월 26일(화)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 양순관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국진 목사로 주제는 “올바른 성경비유해석”이다. 오찬이 제공된다.

▲문의: (718)279-1414

이단대책세미나

미동부총신신대원 동문회(회장 이재철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대책세미나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나무교회(정주성 목사)에서 열린다. “교회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사는 권남계 실장(전 신천지 교회 담임,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 상담실장, 부산이단대책위원회 위원, 이음교회 담임전도사).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718)838-4494



3월 5일 킹더마이저 미션센터에서 유태웅 목사와 함께 하는 '화요찬양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유태웅 목사와 함께 하는 '정기화요찬양모임'

유태웅 목사와 함께 하는 '정기화요찬양모임'이 3월 5일 저녁 7시30분 킹더마이저 미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초대 손님으로 찬양사역자 정인영 집사가 참여했다.

유태웅 목사는 서두에 표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자신의 얼굴”이라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매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찬양은 곡조가 반이고 표정이 찬이다. 우거지 중상오로만 찬양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찬양은 ‘십자가(김혜원 찬양사역자)를 시작으로, 신실코너 ‘내 머릿속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중간 중간 인도자와 어떻게 찬양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했는지, 개인적인 비전과 사역방향을 나누며 함께 축복하는 기도시간을 가졌다.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유태웅 목사는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에 대해 언급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이 요구된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날들이 되라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를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준비한 간식으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정기화요찬양모임)



뉴욕장로성가단 신입단원 4명 환영식

뉴욕장로성가단(단장 김재관 장로)은 단원배가운동 캠페인을 통해 1/4분기에 4명이 가입했다. 정건섭 장로, 이주백 장로, 김춘경 장로, 박영호 장로는 입단 환영식에서 단복, 단배지, 명찰, 악보 및 바인더, 단연혁과 단조직, 사업계획서, 회칙 등을 받았다. 환영식은 3월 12일 오후 8시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렸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KPCA 뉴욕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PCA 뉴저지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2019년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위한 1차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라”

뉴욕교협 부활절새벽연합예배 1차 기도회

뉴욕교협이 2019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위한 1차 기도회를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 다민족교회(김전 목사)에서 가졌다.

예배는 총무 이은수 목사 인도로 기도 전희수 목사,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 설교 양희철 목사, 합심 통성기도 인도 박황우 목사(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하정민 목사(2019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위하여),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증경회장단 부회장 양희철 목사는 “교회의 중만”(엡1:18-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협 연합사역과 목회시절 간격을 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능력으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의 머리”라고 강조하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 받아 목회했다. 약속은 내가 가져야 약속이 된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이제 나이가 80

이 넘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기쁨이 넘친다”며 “맨해튼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주님을 위해 뭐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은퇴 목사들이 같이 전도하기 바란다”며 성경을 암송하면 전도하기 좋다고 말했다.

이날 거의 같은 시간에 뉴욕목사회 부활절연합찬양제 1차 준비기도회가 퀸즈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연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22개 지역으로 나뉘어 지역별로 드리게 되는데 이날 지역구분표를 배부했으며 4월 1일 교협사무실에서 지역장 예비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목사회도 2차 준비기도회를 4월 1일 오전 10시30분 뉴욕새협장로교회에서 연다고 발표해 또 한 번 목사회와 교협이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2차 준비기도회는 4월 8일(월) 오전 10시30분 열리며 장소는 미정이다.

(유원정 기자)

KPCA 뉴욕일원 2개 노회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와 뉴저지노회 제 60회 정기노회가 지난 3월 11일 저녁부터 열렸다.

뉴욕노회

뉴욕노회는 11일 오후 7시부터 1박2일간 뉴욕한인연합교회(허용구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선출된 새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허용구 목사 △부노회장 노성보 목사, 지재홍 장로 △서기 김전수 목사 △부서기 조태성 목사 △회록서기 우영주 목사 △부회록서기 이경세 목사.

회무처리를 통해 △뉴욕시 온성교회(김성은 목사) 김진형 목사 부목사 청빙 △뉴욕방주교회(김천수 목사) 장로 2인 증선 △예수반석교회 김원진 목사 회원 가입 △맨하탄새교회(김영호 목사) 교회 및 목사 가입 △뉴욕에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유명근 전도사 목사고시 △캠브리지연합장로교회(김영호 목사) 김성준 전도사 목사고시 및 장다솔 전도사 목사안수 △생명길장로교회(우영주 목사) 장로 2인 증선건을 다루었다.

또 임원회가 결의한 총회 현의안으로 △장로 부총회장을 역임한 은퇴장로는 노회 인권회원으로 △총회 헌법 규례서 새로 제작 △각 노회가 총회에 상정한 안건과 그 안건의 취지 설명서를 대회 할 전에 총대들에게 발송하는 규칙 제정 △총회에서 인준한 재판국장과 서기를 총회 임원회가 행정지와 공문을 내려 교체한 것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다루었다. 또 △무조건적인 동북노회와 노회통합을 결의했다.

뉴저지노회

뉴욕노회 제84회 정기노회 뉴저지노회는 12일 오전 9시30분 뉴저지 하베스트교회(

안민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방홍석 목사, 부노회장 정창문 목사와 박진수 장로, 서기 조인목 목사, 부서기 강신균 목사, 회록서기 정철 목사, 부회록서기 한창수 목사, 회계 손동우 장로, 부회계 안병구 장로, 감사 안민성 목사와 윤영호 장로.

회무처리를 통해 △한무리교회(박상돈 목사) 장로 2인 증선과 권혜택 목사 교육목사 시무 △에인교회(정철 목사) 오철 목사의 목사안수 및 시무 △빛교회(박동은 목사) 최병호와 전은진 목사고시 △하나님의사랑교회(정석진 목사) 장로 4인 증선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사) 강병희 목사 회원 가입 및 시무 △이레교회(김영철 목사) 장로 4인 증선 △광교회(유재도 목사) 한순규 목사 목사회원 가입 및 시무 △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 목사) 노근래 목사 회원가입 및 부목사 시무, 장로 3인 증선, 4인(김선복, 김완, 김용현, 박찬) 목사고시 추천 △뉴저지 온누리교회(조인목 목사) 주와 함께하는교회로 교회명칭 변경 △민음장로교회(박상훈 목사) 장로 2인 증선 △세상의빛교회(민경수 목사) 교회주소 변경 등을 다뤘다.

한편 총회 인준 재판국장과 서기 교체에 대한 해명과 시정 현의안을 총회에 내기로 했으며, 임원 수 및 각 기관 축소, 임기 2년, 그리고 총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중 위원회 대폭 축소 안은 6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으며, 임원 축소 및 총무제 안은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성령의 말씀, 귀 뚫린 종으로 살자”

뉴욕목사회 부활절연합찬양제 1차 기도회

뉴욕목사회가 부활절연합찬양제를 위한 1차 기도회를 지난 18일 오전 11시 퀸즈한인교회에서 드렸다.

이준성 목사(부회장) 인도로, 경배와 찬양 김정길 목사, 기도 김수경 목사(찬양분과), 성경봉독 박도보라 목사(감사), 말씀 이만호 목사(증경회장), 합심기도, 인사 박태규 목사(회장), 광고 김진화 목사(총무), 축도 김상태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기도는 안승백 목사가 △뉴욕교계와 목사회와 교협 사업계획을 위해, 정숙자 목사가 △회원 목사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만호 목사는 “귀 뚫린 종”(신15:12-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종 즉, 귀 뚫린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은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원적이고 가족적”이라고 말하고 “사순절을 지나며 귀 뚫린 종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종으로 복을 받게 된다”며 말씀으로 귀를 뚫자고 강조했다.

공고를 통해 목사회 총무 김진화 목사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무는 목사회가 연초에 이미 사업일정을 발표했으며, 이번 기도회에 앞서 교협과 타협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진화 총무는 “많은 목사님들이 왜 교협과 목사회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기도회를 하느냐며 교협과 싸운 일이 있느냐고 묻는데 싸운 일은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회는 연초에 이미 1년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가능하면 양측 회장과 임원들이 모여 조율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교협은 지난해에 비해 새로운 큰 행사가 3개가 추가돼 목사회와 교협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도회를 앞두고 증경회장들이나 기독인론들이 난처한 상황을 표명했다. 김 총무는 “교협에 연락했지만 타협이 안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회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한 싸움은 없지만 서로 배려하는 것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박태규 목사회 회장은 “정순원 교협회장이 한국에서 돌아오면 같이 상의하겠다. 불신을 없애도록 양장 서겠다”고 말했다.

증경회장 한재홍 목사는 “연합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날짜만 다른 날도 잡으면 된다. 그러면 교협과 목사회 행사에 다 참가할 수 있다. 다음 기도회도 4월 1일로 날짜를 못 박지 말라. 교협에서 그 날에 한다면 바꾸어 주고, 서로 타협하라”고 조언했으며, 박태규 회장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부활절연합찬양제 1차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수정교회가 17일 임직식을 마치고 순서 맡은 목회자들이 임직자와 함께 기념촬영 했다.

“칭ziger로, 위로자로,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뉴욕수정교회 장로장립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뉴욕수정교회가 지난 3월 17일 저녁 임직식을 갖고 장로장립 1명(서대원), 안수집사 3명(전유선, 조영남, 이철우), 권사 6명(정귀녀, 강성실, 전호녀, 강성미, 조미숙, 김유심)과 명예권사 2명(배갑수, 최순호)을 세웠다. 또 차영운 장로는 원로장로가 됐다.

담임 황영송 목사는 “삶으로 실천하는 칭ziger로 겸손과 생명의 향기로 칭찬 화복케 하는 자 무릇으로 기도하는 자로 진리에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로 주님을 닮아 사랑과 용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생, 성결, 신유, 재림에 걸맞는 성결인이 되기를 기도했다.

임직예식은 황영송 목사 인도로 기도 이상원 목사(몽아일랜드성결교회), 찬양 시온성가대, 말씀은 박수복 원로목사가 전했다.

박 목사는 “착한 일꾼 바나바”(행11:24-2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유산으로 주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며 “임직자들은 천국행 열차(교회)의 승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본문의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전문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사 취임, 안수집사 취임이 있었으며 시무장로 취임은 수정교회가 속한 동부지방회장 황유선 목사가 임직패를 수여하고 축사했다.

이날 취임한 서대원 장로는 1994년 유학생으로 동 교회에 출석하면서 지난 25년간 집사로 헌신했다. 서 장로는 “인생의 한 챕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며 선배장로들의 순종과 섬김을 배우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담임목사의 꿈과 비전을 함께 하며 말은 자로 충성하며 헌신하겠다”고 답사했다.

축사에 나선 뉴욕감찰장 조승수 목사(퀸즈성결교회)는 1. 인정받게 됨 2. 공식적 상급의 자리에 들어선 것 3. 공식 한사람이 사람됨 4. 수정교회 담임목사에게 축하했다.

권면사를 맡은 황화균 목사(전비주성결교회총회장, 뉴욕소망교회)는 골로새서 4장 17절을 들어 “주 안에서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며 좋은 군사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권면했다.

수정양상들의 축가와 차영운 장로의 광고후 김석형 목사(전비주성결교회총회장, 몽아일랜드성결교회 원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북한 제외 모든 나라에 세워져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 성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가 주최한 제 25회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 행사가 16일 오후 6시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데보라 이사장은 “다음세대를 위한 복음전파를 위해 사역하는 어린이전도협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과 후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식사와 교제시간을 가진 후 케빈마 선생이 찬양과 울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밤에서 참석자들이 찬양과 울동을 하고있다. 우측위원은 여병현 목사가 본 협회 소개와 나눔 시간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

동의 시간을 인도했다. 또한 여병현목사의 인도로 어린이전도협회 소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여병현 목사는 “지난 81년 어린이전도협회에 들어와 한 길만 걸었다. 1600명 어린이부터는 전도사로 사역했지만 어떤 아이가 예수를 믿는지 확인



남가주새언약교회 8주년 기념 및 이전감사예배가 애나하임에 위치한 새예배당에서 가졌다

LA에서 OC카운티로...하나님의 뜻 읽기 남가주새언약교회 8주년 기념 및 이전감사예배

남가주새언약교회(잔강 목사)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에 교회 설립8주년 기념 이전감사예배를 OC카운티 애나하임 새성전(3111 W. Orange Ave)에서 드렸다.

이날 8주년 기념 및 이전감사예배는 2부로 진행됐는데, 1부는 축하예배로 잔강 목사의 사회로 이용남 목사의 기도, 강정윤 목사의 축가, 양홍규 목사의 봉헌기도, 그리고 오병익 목사(지방회장, 남가주벨렐교회)가 사도행전 3장 1-10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가진 2부 축하와 격려의 시간에는 잔강 목사가 교회 연혁 및 교회시설을 소개했고, 강태광 목사가 축사를 그리고 문장혁 장로가 인사 및 광고를 하고 박용덕 목사(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남가주빛내리교회)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말씀을 전한 오병익 목

사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있고, OC카운티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LA에서 OC카운티로 남가주새언약교회를 크게 확장 이전시킨 이유는 이곳에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고 말해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한편, 남가주새언약교회는 지난 2월 LA에서 OC카운티 애나하임으로 교회를 확장 이전했으며, 4500Sqft의 규모로 본당 외 친교실, 방수실, 주방, 영아 및 유아실, 소그룹실, 사무실 등 많은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배시간은 매주일 오전 9시와 11시, 수요일과 금요일 각각 저녁 8시에 수요회복예배와 금요성령집회로 드리며, 매일 새벽 6시(월-금)에 새벽기도회가 있다.

▲문의: (714)200-7890
(기사제공: 남가주새언약교회)



이웃과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미주장신대학교 저소득 가정 자녀들을 위한 캔푸드 Canned food Drive 캠페인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가정 자녀위한 Canned food Drive 미주장신대 이웃과 하나 됨 실천 캠페인 실시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 재학생들이 이웃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캔푸드 드라이브(canned food drive)’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의 신학과 목회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미주장신대 학생처(처장 김루빈 교수)와 기독교 사회윤리 연구모임인(담당 강우중 교수) ‘공감 in 공감’ 주제로 미주장신대학교 재학생들이 힘을 합쳐 모집된 300여개의 캔푸드를 Southbay Volunteer Center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미주장신대 교내 기독교 사회윤리 연구모임인 ‘공감in공감’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사건들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와 그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해 복음적이고 실천적 대안제시를 위한 모임이다. 홀리스, 환경과교, 소득불평등, 청소년 성교육,

동성애 이슈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이자 교회적 현안들에 대해 복음주의적 관점제시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

미주장신대는 학생처 주관으로 재학생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목회에 대한 구체적 준비와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학생들이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학문적-목회적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 학술 연구 모임과 다양한 교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재학생들의 신학과 목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학술 세미나 그리고 참여-개선 운동을 통해 학문적 이론과 구체적 실천을 균형있게 제공하고 있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학교)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한 케어팩 만들기 동참해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크라우드 펀딩 1만5천910달러 모금 한인가정상담소 위탁아동 케어팩 후원 캠페인 종료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케어팩’ 모금 캠페인을 펼친 결과 총 1만5천910달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됐으며 백팩, 생활용품, 의류 등이 후원 용품으로 들어왔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모금된 후원금으로 150개의 위탁아동 케어팩을 만들기 위한 용품들을 구매했으며, 지난 3월 9일 40여명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케어팩 150개를 만들었다. 위탁아동 케어팩은 위탁가정으로 배치될 위탁아동을 위한 필수용품으로 구성된 가방이며, 연립별, 성별로

총 10종류를 만들었다.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줘서 당초 목표액인 1만5천 달러를 초과 달성하게 돼 감사하다”며 “한인사회에서 위탁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케어팩은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자신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들어진 위탁아동 케어팩 일부는 한인가정상담소를 통해 위탁아동에게 일부 전달 예정이며, 나머지는 웨스트코비나에 있는 아동보호국 산하 APP(Asian Pacific Project) 유닛에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소망소사이어티 어바인소망케어교실이 베델한인교회에서 개설됐다

소망소사이어티 어바인소망케어교실 개설 베델한인교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지난 3월 7일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교실을 신설하고 오픈예배를 드렸다.

치매환자와 가족들, 자원봉사자들과 실무자를 포함한 20명이 참여한 첫 시간에 유분자 이사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으며, 베델교회에서는 정승락 목사가 참석해 기도하고 최경철 사무총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소망케어교실은 치매환자 가족들의 심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환자 본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열리는 클래스다.

어바인 소망케어교실은 베델한인교회(18700 Harvard Ave) 새신자교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어바인 지역의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지원모임은 4월부터 매주 첫째 주 목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베델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망소사이어티가 치매환자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해 개설한 지원모임은 플러튼 지역, 애너하임 지역, LA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참석을 원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면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562-977-4580).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서부교계 게시판

West

김평육 선교사 초청 부흥 세미나
LA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목사, 1200 S. Manhattan Pl., LA)에서는 아프리카 5개국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김평육 선교사를 초청한 부흥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평육 선교사는 지난 25년간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건강한 선교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진행하던 ‘팀 빌딩’ 세미나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 이번에 출판했다. 일정은 22일(금) 오후 7시, 23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24일(주일) 오전 11시다.

▲문의: (323)641-0691

GMU 3월 한달 무료 강의 청취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2019년 봄학기를 맞아 3월 한달 간 온라인 학습센터에서 지원되는 샘플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의: (714)525-0088, 525-0088

고등부 사역자 모집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고등부 담당 사역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 재학 혹은 졸업자이며 이력서(사진 첨부),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이메일(lasarangeducation@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909)802-0580

장학생 모집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장학생을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자격은 △목회자 또는 선교사 자녀 △대학 학생 또는 대학원생 △신학생이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에 실시한다.

▲문의: (818)662-0400

‘제 19회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을 위한 시 공모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는 ‘제 19회 창작 성가의 밤’을 위한 시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 내용은 기독교 성가곡에 쓰여질 가사에 적합해야 하며 공모전에 당첨된 시는 작곡가들에 의해 곡조가 붙어서 성가곡으로 작곡된다. 또한 오는 10월 27일(주일) 오후에 열리는 ‘제 19회 창작 성가의 밤’ 때 선별된 합창단에 의해 성가곡이 발표된다(초연). 시 공모전의 마감일은 4월 15일(월)까지 작곡 분과장(황현정 선생 music1999@gmail.com)에게 보내면 된다. 시를 보낼 때는 ‘제19회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시 공모’라고 적으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310)923-1064, (714)351-0782로 하면 된다.

▲문의: (310)381-9835전현미 회장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목사)는 29일(금) 오후 7시 30분 ‘2019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열고 텔런트 신애라 집사 초청, 간증 집회를 갖는다.

▲문의: (714) 446-6200

성경목회 세미나
전태식 목사(순복음 서울진주초대교회 담임)의 성경목회 세미나가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3월28일(목) 오전 10시부터 30일(토) 오후 6시 가든스위트 호텔과 △4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3일(수) 오후 6시까지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열리게 된다.

▲문의: 010-7600-3397 카카오톡 ID cheo0920



김동일 목사의 저서 ‘예수로 성경읽기’ 북콘서트가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예수로 성경읽기’ 북콘서트 열려 저자 김동일 목사 “성경의 둘다리 묶은 것..”

서울생명찬교회 담임 김동일 목사의 저서 ‘예수로 성경읽기’ 북콘서트가 16일 오후 2시 올림픽장로교회(정장수 목사)에서 열렸다.

김재영 목사(ITS교수) 사회로 열린 북콘서트를 통해 김동일 목사가 ‘예수로 성경읽기’ 내용에 대해 강의했으며 김재영 목사와 함께 대답하는 시간이 가졌다.

김동일 목사는 “이 책은 의도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라며 “목사가 되고자 고대 사

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89년 신학교에 입학해서 설교할 때마다 분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공부했다. 세월이 지나다보니 성경에 둘다리가 있음을 느끼게 됐으며 그것을 엮은 것이 ‘예수로 성경읽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구약은 강력하게 연결돼있다.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풀어볼 수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교단 다른 예비 선교사 한자리 모여 연합훈련

KWMA실행위, 내달 이어 오는 10월 연합수련회

파송을 앞둔 선교사 후보생들의 공동 교육과정인 '세계선교훈련원'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의 선교훈련만으로는 한국교회 선교사로서의 연대의식을 함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 연합선교훈련실행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세계선교훈련원 재개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실행위는 우선 예비선교사 연합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KWMA 회원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는 다음달 18일 경기도 파주 솔수양관에서 이틀간 진행된다. 실행위는 오는 10월 2차 연합수련회도 열기로 했다. 연합수련회는 각기 다른 파송 단체를 가진 선교사 후보생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세계선교훈련원은 원래 KWMA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다. 1994년부터 연 1회씩 총 12차례 회원 단체 선교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연합선교훈련을 시행했다. 당시 선교훈련원은 최대 8주간 선교 역사, 타 문화권 선교, 언어, 선교 영성 등을 교육했다. 한국교회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기간이었다. 하지만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할 만큼 선교 인프라가 커지면서 중단됐다.

선교훈련이 다양해지면서 교육 수준은 향상됐지만 공동체 의식은 낮아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교지에서도 연합선교훈련 재개를 요청해 왔다. 초임 선교사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과 갈등이 빚어지곤 해서다. 시니어 선교사들은 초임 선교사들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해 갈등이 반복된

다고 판단했다. 선교사들의 갈등은 선교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조용성 연합선교훈련실행위원회 공동 코디네이터는 18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다”면서 “이번 연합수련회는 긴 사역을 위한 출발점에 여러 선교부와 단체에 속한 훈련생이 함께 서서 화합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집진적으로 세계선교훈련원을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가다를 잡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성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세계선교부 선교훈련담당 간사도 “파송 전 함께 사역할 동료들과 미리 만나 교제하는 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할 연합선교훈련은 현재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훈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다양해진 선교훈련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선교현장에서 필수적인 노하우를 교육한다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회, 군선교 점점 넓혀갈 새틀 짜야

온라인 예배 참석 가능, 매달 2회 평일 외출은 이미 시행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가능해졌다. 다음 달부터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병영문화가 급변함에 따라 주일예배 참석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새로운 군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한 민간인 군 사역자는 13일 “장병들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가 허용되면 입대 전에 출석하던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일예배를 드리겠다”고 해감을 놀랐다”면서 “영내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장병들은 지난달부터 평일에도 한 달에 두 차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30분까지 외출할 수 있다. 평일 외출은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전체 병력의 최대 35%까지만 허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평일 오후 6-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현

재 일부 부대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용 중이다.

경기도의 한 해병부대 A군목은 “교회에 잘 나오던 한 장병이 수요일예배 나오지 않아 알아보니 동료들과 부대 앞 피서방에 다녀왔더라”면서 “갑작스레 확대된 자유이 신앙의 단절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코파이를 먹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장병은 이제 많지 않다”면서 “장병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 프로그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장병 심방 횟수를 늘리고 양육모임을 강화하는 등 ‘찾아가는 목회’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B군목은 “지난달부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시행됐는데 초창기여서인지 아직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4월부터 휴대 전화 자율 사용이 허용되면 교회 출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장병들에게 카톡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전달하는 ‘휴대전화 심방’을 시작한다”면서 “신세대 장병들과 접점을 넓힐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선교 정책 담당자들도 ‘양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문장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총무는 “장병들에게 여러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종교활동이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선교의 무게중심을 양육으로 옮겨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총병 훈련도 강화해 이들이 내부반에서 ‘생활 심방’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덕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무는 “군선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장병들 단톡방을 만들어 양육을 위한 번개모임도 하고 온라인 심방도 하는 등 순기능을 선용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진중세례 3년 연속 감소…軍선교 ‘암초’

입대자 수 점점 줄고 타종교 적극적 포교가 원인인 듯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군대에서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 수가 13만1764명으로 전년 대비 1만1322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박선희 목사)가 ‘연도별 진중세례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군선교연합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도별 진중세례(침례) 현황’을 공개했다.

진중세례 인원은 2000년 18만7156명을 정점으로 2016년 16만9671명, 2017년 14만3086명으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육군으로 1만1322명이 줄었다. 해군(85명)과 공군(62명)이 뒤를 이었다.

군선교연합회는 출산을 저하와 정부의 병력 감축으로 인한 군 입대자 수 감소, 군대 통합 폐합,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타 종교의 적극적인 포교활동 등을 진중세례자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김대덕 군선교연합회 총무는 “과거에는 입소 인원이 37만명이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연평균 25만명 이내로 줄었다. 또 군 입대 시기를 본인들이 선택하는 시대다 보니 세례자의 숫자는 늘 변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 외에 타 종교들도 물량공세를 펼치

며 포교 활동을 확장하고 있어 전도에 어려움이 많다”며 “군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의 참여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례받은 장병들이 부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양육,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군인 신자 기록카드에 등록된 장병은 6만1128명으로 전년 대비 3만776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선교연합회는 “장병들에게 세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대 배치 후에도 군종목사와 민간인 신분의 사역자들을 통한 양육 시스템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훈련소 진중세례식과 전국 100개 군인교회 및 후원교회의 전도활동을 통해 세례장병을 늘리고 양육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지 입장을 객관적 수치로 밝혔다. “이로서 절대다수의 성도들이 오 목사를 담임목사로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표는 재신임 투표 성격이 강하며, 오 목사

“중국 이단 ‘파룬궁’ 국내 포교활동 절대 반대”

파룬궁사이비종교대책위, 반대 사전전과 국민청원으로 저지 의사 밝혀

지난해 한국교회에서 사이비 종교로 분류된 파룬궁의 활동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반대 사전전이 시작됐다. 파룬궁 소속 ‘선원 예술단’이 17일부터 국내 5개 지역 문화예술회관을 빌려 한국포교를 목적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이다.

파룬궁사이비종교대책위원회는 16일 “파룬궁이 17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과 20-21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24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26-28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30-31일 충북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중국 전통극과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각 공연장 앞에서 반대 사전전을 벌이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파룬궁은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교주 이홍지가 1992년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혼합한 기공 수련 단체로 시작됐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자 본인이 살아있는 부처인 생불(生佛)이고, 파룬궁 수련을 하면 어떠한 불치병 난치병도 치유될 수 있으니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상 종말이 왔을 때, 파룬궁 수련자들만 살아남아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부처, 마호메트는 모두 실패했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바로 파룬궁 교주 이홍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다.

한국에는 1990년대 후반 전파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국에 10개의 학습장과 270

여개 수련장이 있으며, 1200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심은 지난해 총회에서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와 함께 파룬궁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파룬궁의 선원 예술단 공연에는 신격화된 교주를 찬양하고 칭송하는 제가 포함돼 있다”면서 “공연은 그들만의 축제라기보다 포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반정부 활동을 위한 정치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니 한국교회의 경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7일 현재 ‘불법체류자 및 허위 난민신청자 집단이 종교교해자로 둔갑해 포교를 위해 선원예술단이 공연을 하려 한다. 가짜 난민을 강력히 추방해 달라’는 청원에는 1만300여명이 동참했다.

정흥호 아신대 제10대 총장 취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아신대) 제10대 총장에 정흥호(64) 선교학 교수가 취임했다. 아신대는 14일 경기도 양평 학교에서 총장 이·취임식을 갖고 아시아와 세계선교의 선교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 최남수(의정부 광명

교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정 총장은 “아신대는 특정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되지 않은 복음적이고 선교지향적인 신학교”라면서 “복음적인 교회의 연합체, 선교교육의 전초기지라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본주의 복음

주의 신학으로 전문인 교육, 맞춤형 선교교육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아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복음선교신학회 회장과 아신대 선교대학원장, 파키스탄선교연구원 연구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총장 임기는 2023년 2월까지다.

오정현 목사 신임 확인 투표 사랑의교회 성도 96.4% “찬성”

사랑의교회 성도 96.4%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신임 확인 투표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12일 “10일 주일예배 때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정회원 1만5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96.4%가 오 목사

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로써 절대다수의 성도들이 오 목사를 담임목사로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표는 재신임 투표 성격이 강하며, 오 목사

“조선독립운동에 참여 않는 것이 선교사로서 옳은 태도인가”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 에비슨, 미온적 동료 선교사들에 일침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 올리버 R 에비슨(1860-1956·사진)이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외면한 서양 선교사들에게 일침을 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14일 처음 확인됐다. 에비슨은 42년간 한국에서 의료선교를 펼치며 국내 서양의학 발전의 기틀을 놓은 인물이다. 제중원 4대 원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캐나다로 귀국한 뒤에도 ‘기독교인친한회(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에 가담해 한국의 독립을 도왔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논문을 작성하다 이 문서를 발견했다며 국민일보에 공개했다. 논문은 지난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5집’에 수록됐다.

해당 문서는 에비슨이 이승만의 제안을 받아 기독교인친한회에 합류한 이후인 43년 작성했다. 기독교인친한회는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를 대미 외교 자원으로 활용기 위해 이승만 등이 조직한 단체다. 에비슨은 35년 귀국했지만 한국에

서의 오랜 선교활동으로 한국을 다녀간 각국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다.

42년 이 단체에 합류한 에비슨은 그해 10월 한국 독립운동에 서양 기독교인이 힘을 실어 주자는 내용의 편지를 지인들에게 보낸다. 임시정부에 기독교인 지도자가 여럿인데 훗날 한국이 독립되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담았다.

적지 않은 서양 선교사들이 이들이 소속된 선교부는 그의 제안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선교사는 복음 전파에만 힘쓸 뿐, 정치행위인 독립운동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에비슨은 이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43년 11월 1일 다시 편지를 쓴다. 편지는 기독교인친한회 서기 겸 재무였던 그와 이 단체 회장이자 감리교 목사인 폴 더글러스 아메리칸대 총장 공동 명의로 발송됐다.

에비슨은 편지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게) 과연 선교사로서 옳은 태도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선교지에서 활동하려면 ‘순수 복음을 전할 자유’ ‘종교·과학·정치적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유’ ‘타인

의 간섭 없이 자선을 행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선교 초기엔 이런 자유가 있었지만 현재 한국은 신사참배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천황숭배 없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으며 병원에서도 천황에게 매일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어 “한국 지도자들은 훗날 이렇게 행동했던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성으로 돌아오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강도 만났을 때 누가 도둑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누가 지나쳤는지를 잘 알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도우라고 권한다.

박 소장은 “에비슨이 열거한 선교에 있어 필요한 세 가지 자유는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은 현재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며 “오늘날 북한 등 공산주의권 선교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자 125명 ‘종교활동비 과세’ 위험 심판 청구

한국교회 목회자 125명이 “종교의 재정에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위험”이라며 종교인과 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종언 대한예수교장로회(예

장) 합심 총회 사회인권위원장 은 최근 예정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소속 목사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의 위험

“동성애자 상징 된 시드니를 거룩한 도시로..”

성시화운동, 현지서 찬양집회·기도회

이들이 행진한 거리는 지난 3월 30만명의 동성애자와 그 지지자들이 ‘마디그라(MARDI GRAS) 축제’를 열었던 곳이다. 호주 정부가 지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뒤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동성애 행사였다. 김환기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된 시드니를 거룩한 도시로 환원하겠다”는 의지로 시드니성시화운동이 시작됐다”며 대화의 유대를 설명했다. 나일 목사는 “시드니의 성시화를 위해 한인교회들이 중심이 돼 대화를 개최하고 행진에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축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받은 헌금 등을 종교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 “

사를 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도 축하영상을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시드니의 성시화를 위해 모였다”면서 “시드니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8-9일에는 ‘시드니여, 깨어나라’는 주제로 시드니 새순교회(담임목사 송선강)에서 지역 집회가 열렸다. 한국구세군역사박물관 관장 황선엽 사관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사관은 “그리스도인 중에 징크스와 우상에 빠져 사는 이들이 있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아 언제든 세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교활동비를 보고하라는 건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선교의 창 (120)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피 선교지역으로 변해가는 유럽

“유럽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여러 선교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유럽교회는 지난 2천년간 기독교의 중심적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힘을 잃고 고목나무처럼 변해가고 있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말한 대로 기독교는 지금 서구세계에 더 이상 아무런 매력력을 주지 못하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오랫동안 세속화되어 온 유럽에서 교회는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몰락할 것이라고도 한다. 유럽이 선교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유럽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제 세계교회는 유럽교회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때 유럽은 물론 세계선교 차원에서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영적 현황과 전망

유럽은 10,180,000km²으로서 지구 표면의 2%, 육지의 약 6.8%에 해당된다. 그 땅에 현재 약 50 개국이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9.8%인 7억4천만 명이 있다. Operation World 통계에 의하면 유럽 인구의 72.2%는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 기독교인을 의미한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비율은 4.2%에 불과하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0년 동안 유럽의 무슬림 인구 성장은 무려 300%에 달한다. 퓨 포럼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유럽에는 3천8백만의 무슬림이 있는데 이는 유럽 인구의 5%에 달하는 것

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고, 네덜란드 6%, 오스트리아 5%, 독일 4.9%, 스위스 4.3%, 벨기에 4%, 영국 3%로 모두 성장 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후에는 무슬림이 프랑스 인구의 약 25-30%를 차지하게 되고 39년 후에 프랑스가 이슬람 국가가 된

유럽의 외면적 기독교 문화는 웅장하고 화려하다. 그러나 내면적 실상은 속 빈 고목나무처럼 꺼질하기 그지없다. 세계교회는 유럽이 미전도 종족으로 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는 보고가 있다.

2. 기독교의 쇠퇴 이유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목회했던 교회당이 힌두교 종파인 제인교 사원이 되었다. 1910년 역사적인 세계최초의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렸던 교회는 공연장과 에딘버러 페스티벌 매표소로 바뀌었다. 이는 유럽교회의 쇠락을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찾아온 “성경을 비신화화” 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크다. 이는 인간 이성을 중시한 나머지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신을 인간의 범주 안에 가두는 오류를 낳았다. 초월적이며 절대성을 상실한 기독교는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둘째는 세속화(Secularization)의 영향이다. 이는 인본주의 또는 합리주의로 표출된다. 바로 다원주의(pluralization), 맘모니즘, 동성애, 낙태 등 전통적인 윤리와 기독교 가치관마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셋째는 국가 종교라는 획일화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다. 유럽교회는 국교(國敎)이기에 신앙의 순수한 면보다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교회나 성당은 생동감이 떨어지고 성장하려는 열정이 없다.

넷째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 등 동양종교 거센 도전이다. 최근 유럽인 동양의 신비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는 가정이 붕괴되고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 이에 교회가 노쇠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3. 유럽 선교의 당위성

왜 유럽을 다시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가? 유럽의 교회가 자생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회복의 희망은 있다. 따라서 유럽 교회가 살아나면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에는 7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 이들에게는 뿌리 깊은 신앙 전통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

치와 경제, 문화적으로 유럽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력이 엄청나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식민통치를 했던 나라들과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이 재복을 화 된다면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유럽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이슬람권 사람들이다. 물질고 낮설은 땅에 온 이들은 생사가 달려있다. 홈그라운드로 오는 저들에게는 이슬람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절호의 선교 기회가 온 것이다. 전략적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켜 장차 역으로 이슬람권 선교사로 파송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유럽 선교 전략

이 단락에서는 전 돌로스 선교회 단장을 역임했고 유럽선교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최종상 선교사의 견해에 살을 붙여 기술한다. 그는 “유럽에서 기독교가 소수종교로 전락한다면 영적 도미노현상이 북미와 아시아에도 미칠 것이다. 이로써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유럽 외부로부터 새로운 영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첫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럽이 기

독교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그 곳의 영적 실상을 알리며 계몽해야 한다. 유럽이 피선교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때 기도하며 헌신자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둘째, 피터 와그너가 말한 것처럼 교회개혁은 하늘 아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다. 교회개혁은 유럽교회 성장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것이다.

셋째, 유럽선교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이다. 유럽선교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한인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비전과 전략을 나누며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의 선교적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럽선교의 열매도 극대화할 수 있

다. 넷째,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유색인종이 유럽에서 독단적으로 선교하기는 쉽지 않다. 자존심과 냉소주의로 가득 찬 저들의 콧대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송된 선교사가 현지 나라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면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맺음 말

유럽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유인즉, 유럽교회는 엄청난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교회의 선교적 헌신이 없이 북미주권과 제3세계 교회와 힘만으로는 세계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다. 현대 안타깝게도 지금 유럽교회가 신음하며 쇠락해가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비적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된 아픔을 나누며 넘어져가는 친구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인의 간절한 부르음에 응답해 사도 바울은 선교 향로를 유럽으로 바꾸었다(행16:9).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유럽을 낭만적으로 보기보다는 영적 시각으로 ‘새마케도니아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하겠다.

jsong007@hanmail.net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기흉

5년 이내 재발 확률 높아

허파(폐)는 대기 중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는 고마운 기관이다. 옛말에 조그만 일에도 실없이 웃는 사람을 두고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지만 실제로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생기는 병도 있다.

-은행에 근무하는 50대 후반의 남성 임 씨는 사어나 도중에 심한 기침과 함께 오른쪽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는데 숨이 차고 가슴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아왔다. 임 씨는 5년 전 기흉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의사에게 폐기종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없었다. 젊어서부터 애연가였던 임 씨는 지금도 하루에 담배를 두 갑 이상 피우고 술도 가끔 즐기는 편이었다. 담배를 끊으려고 니코틴 패치도 사용해보고 담배는 끊은 약도 써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검진상 혈압은 수축기 140mmhg, 이완기 100mmhg였고, 맥박이 분당 105회로 빠른 편이었다. 혈중 산소 농도는 92퍼센트로 떨어져 있었다. 폐 청진상 우측 폐음이 현저히 감소해 있었고 만질 때 흉통이 조금 있었다. 흉부 엑스선 검사상 우측 폐의 기흉(늑막강 안에 공기가 차는 것)으로 진단 받았고 즉시 병원에 입원해서 공기를 제거시키는 시술을 받았다. 흉부 CT 검사 결과 양쪽 폐에 심한 만성 폐기종이 있었고 큰 수포가 보여서 수포 제거 수술을 받았다.

흉벽과 폐 사이에 있는 늑막강에는 얇은 액체 막만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폐 안의 공기가 늑막강으로 들어가는 질환을 기흉이라고 한다. 외부의 충격 없이 저절로 생기는 기흉은 폐 질환이 없는 일차성 기흉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질환을 앓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차성 기흉으로 구분된다. 일차성 기흉은 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사람에게 많이 생기는데 이는 키가 크면 폐포 압력이 높고 수포의 생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기흉은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병원에서 시술 중에도 생길 수 있다.

위의 증례처럼 기흉은 흡연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단 기흉이 발생하면 통계적으로 5년 이내에 재발할 우려가 50퍼센트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면 담배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예배: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유, 유년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s.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45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 N.Y.: Tel. (718)886-4400 ■ Fax. (718)886-0074 

캐플린 임상목회 (26)

한국과 미국의 장례 문화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캐플린)

90세까지만 해도 강건하시던 장인어른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지다가 신장 투석까지 받고 임원해 계시더니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소전을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간신히 발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와 준비는 소위 상호회에서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빈소 옆에는 상호회에서 나온 분들이 가족과 문상객을 위해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처 상복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남성용 검은색 양복과 여성용 원피스 혹은 한복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미 친지들은 지난 이틀간 빈소를 지키고 있었고 병원 원목으로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독교식 천국 환송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위가 목사임을 알고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운구원들과 함께 상호회가 준비한 장의 리무진 차에 시신을 넣은 관을 옮겨 신고 가족들과 하관까지 참석을 원하는 문상객들은 별도로 준비된 대형버스에 태우고 장지로 향하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하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한국에 계신 부모나 친지 어른들의 장례식에 참석해본 대부분의 미주 지역 목회자분들과 교인들이 경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많은 편리함과 현실적인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타국 땅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미국의 장례문화를 경험한 사람으로, 지금은 병원캐플린으로 일주일에도 서너 명씩 세상을 하직하는 환자들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 장례식을 인도하거나 장례준비에 조언을 해주는 일선 현장의 사역자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정을 모르는 경솔한 지적이 될 지도 모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비교를 통해서 성경적이면서도 겸손한 장례 문화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례 대 화장: 동양에서는 유교적 사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꺼려온 게 사실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소각해서 훼손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

다. 한국에서는 양반층은 대개 선산이 있어서 조상들과 후손들까지 한 곳에 매장하고 화려한 비석을 세워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고, 풍수자들은 조상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들이 잘 된다는 흑세무민적인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서양에서는 유대인들이 부활에는 영혼이 들어가야 할 원래 자신의 육신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관습을 지켜서 지금까지도 화장을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로 쓸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자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천주교나 개신교인들마저 대부분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남은 가족들의 연령층이 젊을수록 화장을 하며, 한국에서는 남골당이 보편화되고 수목장과 같은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가 점점 더 호응을 얻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회와 병원장례식장(한국) 대 전통적인 장의사와 공원묘지(미국):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은 오랜 시간 장의사들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공원묘지와 장례품(관)을 공급하며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인도받고 유족들의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장의사(Funeral Director)들이 모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이 장례식장을 자체 시설이나 비즈니스로 할 수 없게끔 제한을 받고 있고, 시신을 검시하는 Medical Examiner의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환자 가족들이 선택한 장의사가 시신을 인도해 갈 때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 비교: 3일 간 문상을 받는 관습 때문에 유족들은 장례식장에 마련된 숙소에 머물면서 사흘 동안 빈소를 하루 24시간 지키는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문상객들은 3일 중에서 자기가 편한 시간대를 택해 찾아와서 조문을 하는 편리함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미국같이 기껏해야 발인 전에 소위 Viewing이라는 조관예배를 발인 전에 하고 발인과 하관(매장)을 만나질 정도에 다 마치는 실용적인 제도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미주교포들이 한국식으로 조객들을 대접하기 위해 식당을 예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조객들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곧바로 장례식장을 떠납니다. 요란스러운 재할용되는 꽃 화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화환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고인의 지명도와 가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극히 세속적인 전통이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장례식장에 써 붙인 "일체 부끄러우나 축하 화환은 사절합니다"라는 문구가 신선하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남골당 문화는 재정적 비용절감이나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라도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어야겠지만, 과소비와 허례허식의 표상같이 되어 있는 화환, 음식대접, 부담스러운 부의금, 장시간에 걸친 문상 등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제도 같아 보입니다. tdsparc@gmail.com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응모전 장려상 (5)



김복숙 집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favor)"-실리콘밸리에서 보내는 편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favor)"를 통해 대장암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는 저의 오랜 친구(목회자 아내)가 마음 한 편에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favor)"에서 감명 받은 은혜를 한국에 있는 친구와 나누는 "실리콘밸리에서 보내는 편지" 서간으로 독후감을 제출합니다. [필자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소식 전한다. 간만에 편지를 쓰게 되어 참으로 좋고 반갑고 감사하구나, "희진이, 잘 있니? 네가 조금씩 기운을 차린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감사하구나!" 언제인가 너에게 말한 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찬타임스에서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가 있다. 신앙도서인 만큼 어느 책을 선정해도 읽고 나면 은혜와 감사가 있으리라 믿음을 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점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으며, 받은 은혜를 너와 나누고 싶어 마주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favor)는 하형록 회장의 자전적 에세이, 저자는 29세에 이미 유명한 건축설계 회사의 중역이었다(아버지는 목회자이셨고 어머니는 종결 받은 사모, 아름다운 아내와 두 딸이 있는 가정). 저자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심실빈맥증이라는 심각한 병명으로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했다. 저자는 회사 모토에도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고난은 훈련이지만 "심장이식을 받는 길 외에는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자의 심정을 난 감히 짐작한다 말할 수 없구나. 그 절절한 진단 앞에 위기로 찾아가는 절망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살려주십시오, 그 음성이 들리듯 "지금 수술 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너의 음성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저자의 삶(살려주시면,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서원기도)을 읽으며 저자를 통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상대명령에 순종했던 그 옛날의 네가 불현듯 생각났던다.

우리가 꿈 많고 생각 많은 대학 졸업반 무렵, 너는 장차 만날 배우자를 놓고 40일 금식기도와 기도 응답에 순종하겠다는 서원기도를 함께 드렸고,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힘겨웠을 40일 금식기도를 마친 너의 해맑았던 모습. 너는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노라 했지. 그 시절 우리는 어리고 순수했기에 목회자 아내의 삶이 얼마나 헌신인 길인지 짐작할 수 없었나 당연했지 싶다. 너는 저자의 아픈 현실보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일생을 살겠다고 삶의 목표를 세웠고, 이웃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던 네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났던다.

너는 첫 번째 이웃으로 너의 부모님,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한 것처럼 저자 역시 아내와 가족을 가장 소중한 이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이런저런 관계로 담임 목사님께서 힘들어 보이실 때 곁에 계시는 사모님을 보며 가끔 네 생각이 난다. "희진이도 실로 힘든 때 있을까? 있겠지?" 이웃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느 상대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죽는다는 흐름대로 저자는 본인도 심장이식이 한시가 절실한 순간에도 병동 옆방 여인에게 이식하도록 배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저자가 말하는 페이버(favor)란다. 여기에서 나의 생각, 저자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처럼 그 수십 년 전에 내가 드린 40일 금식기도와 서원기도의 크신 응답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네 가정과 네 남편(목사님)께 시무하시는 교회에 함께하리라 믿는다.

"할렐루야! 희진아!" 그 당시 나는 반드시 기독교인을 만나 기도를 이루어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의 기도 응답에 늘 감사한다. 금년 부활절 즈음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지침에 따라 우리 부부 신앙통독을 마쳤고, 오월부터 칠월까지 삼 개월 동안 실시된 구약통독에 감사했다.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실행하는 성경읽기와 달리 같은 날 같은 구절을 읽는 과정에서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들은 하나님이 먼저 배풀어주시는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 가정에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favor)이었다.

저자는 첫 번째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1년 정도 휴식 후 본인 사업 시작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라 했다. 회사 모토를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로 세운 팀하스의 조촐한 출발이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제공을 도우려고 자선음악회를 열어 기금 모금하는 헌신적인 봉사는 이웃사랑 실천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페이버(favor) 참된 이치가 아닌가 싶다. 5년간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로 자리매김하며 첫 이식 심장으로 6년간 생활은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흐르지만 알아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로 긴 세월 지내는 동안 저자가 겪은 기적의 체험에서 그의 건강한 신앙관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등등 "건강은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 아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평소엔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순종의 힘이라 본다. 저자는 하나님 나라 사명자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미국 건축계의 권위 있는 경영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우리는(어쩌면 내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때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싶다. 너는 이해할 수 있는지... 책의 만남에서 가끔 생각나는 구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생각난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은혜로, 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소망을 바라보는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져주신다는 은혜를 믿으며, 그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단다. 저자는 회사 창업 이래 최고의 위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노력하며 "이웃 사랑의 지름길로 만난 성공의 열쇠" 하나님의 은혜 페이버(favor), 축복이다. 저자는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평안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저자에게 주신 가장 큰 페이버(favor)"라 하듯 '우리 주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간구한다.'

희진아! 우리는 문명이 점차 발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에 타자기도 될 줄 모르던 내가 이제는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작성해야 편리하고,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길 지침서의 몇 줄 안내에도 놀라왔는데 이제는 즉시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고, 그뿐인가 스마트폰 등 유용한 매개물도 어느 정도 지나면 업데이트(update)해야 사용에 효율적인 것처럼 이 자전적 에세이를 통해 나의 신앙관에 적용해야겠다. 은혜는 갈구하는 만큼 곁에 있으며 변함없는 순종으로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는 진리를 다시 일깨우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favor)-청림출판" 도서, 이렇듯 몇 줄의 글로는 "빙산에 일각"이거늘 너도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 책을 읽은 후 주위 분들과 돌려보면 어떨까. 이런 작은 나눔도 이웃과 나누는 전도의 기회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 신앙사적은 읽은 후 우리 성경반원들과 돌려가며 읽곤 한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소식 나누기를 소망하며... "아멘!"

희진아,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 미술선생인 덕분에 우리는 웬만한 터러는 내노라하는 미술전시회를 함께 순회하며 감상하고 그림에 대한 감격을 나누던 수십 년 전 시절을 생각한다. 언제인가 너와 나는 '밀레의 만종' 감상을 심각하게 토론하던 추억. 언제 어디서나 그 명화는 너를 만난 듯 반갑고, 그 설렘으로 머무른 나의 졸필로 글을 마무리한다. 내년쯤 한국 방문하여 너의 활기찬 모습, 만나기를 축원한다. 우리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자! 여호와 라파!

davidnjon@yahoo.com

담임목사 청빙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캘리포니아 북가주 산호세에 위치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자체 성전과 교육관을 갖춘 한인 성인예배 EM(영어권 예배)이 동시에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40년동안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사명을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로서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으로 제 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미션과적**
1. 신학대학원 (M. 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으신 분으로 목양의 열정과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며 행동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실 분.
 2.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이 가능하신 분.
 3. 목사안수 후 5년이상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로 헌신하신 분.
 4. 미국내 목회활동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구비서류**
1.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첨부)
 2. 자기소개서 (성장배경, 신앙간증, 소명, 목회경험, 사모 및 가족소개)
 3. 학위증명서 (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서)
 4. 목회자 2인의 추천서 (확인 할 수 있는 전화 및 e-mail 주소 기입)
 5. 최근 설교 2개 (CD/DVD 또는 동영상주소)

접수마감 : 2019년 5월 31일

제출처 e-mail이나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청빙위원회 e-mail : yesokpositive@gmail.com
- 보내실 곳 :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Attn : 청빙위원회)**
1721 DRY CREEK RD. SAN JOSE, CA 95125
- 문의 : 청빙위원회 정천의 장로 (Tel 408-262-0177)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www.svkpc.org

(5면으로 계속)

감감한 인도의 밤을 지나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 중심으로 그 행복을 고백한다. 시편 8편을 찬양하며 감사해 한다.

12시간을 투자해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는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고백한다. 열심히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서 개척교회를 세웠더니, 한순간에 이웃 큰 교회로 몽땅 가버렸다며 속이 상한 중에도, 큰집이나 작은 집이나 모두 아버지 집 아니냐고 말씀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스스로를 행복자라고 겸손히 말씀하신다.

왜 그런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인생의 길이 짐승처럼 이 땅에서 죽음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까지 그 삶이 잇대어 있음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 미주 땅에 살아가도 그 사명에 맞는 의식과 은혜가 없으면 그 삶은 지옥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깨어 의식하며 사명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영어로 보는 성경 (II)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1 Samuel 8: 6-8

6) Samuel was upset to hear the leaders say they wanted a king, so he prayed about it. 7) The Lord answered: Samuel, do everything they want you to do. I am really the one they have rejected as their king. 8) Ever since the day I rescued my people from Egypt, they have turned from me to worship idols. Now they are turning away from you. 9) Do everything they ask, but warn them and tell them how a king will treat them. (CEV)

WORD & IDIOM

* upset: 마음이 상한 * reject: 거부하다 * rescue A from ~: ~에서 구하다 * turn away from ~: ~를 외면하다 * warn: 경고하다 * treat: 대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GRAMMAR

6) Samuel was upset to hear the leaders say () they wanted a king. 사무엘이 속이 상했다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왕을 원했다 so he prayed about it. 그래서 그는 그것에 관하여 기도하였다. =>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원했다 고 하는 말을 듣고 속이 상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관하여 기도하였다.

* to hear the leaders say ~ 는 사무엘이 속이 상하게 된 이유이다. 즉 지도자들이 () 이하의 내용, 곧 they wanted a king(그들이 왕을 원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이다. () 안은 say의 목적격 기능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으며, 아래의 두 () 안에는 각각 they want you to do와 they have rejected를 받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7) The Lord answered: Samuel, do everything () they want you to do. 주께서 대답하셨다 사무엘아, 모든 것을 하여라 그들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것) => 주께서 대답하셨다: 사무엘아, 그들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하여라. I am really the one () they have rejected as their king. 나는(내가) 정말 그다 그들이 거부한 그들의 왕으로써 => 그들이 왕으로 삼기를 거부한 실제의 사람은 나다. NIV 성경은 이 부분을 not you를 강조하는 It is ~ that 구문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It is not you (that) they have rejected, but (that) they have rejected me as their king. 그들이 거부한 것은 내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왕으로써의 나를 거부하였다 => 그들은 그들의 왕으로써의 나를 거부한 것이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8) Ever since the day I rescued my people from Egypt. ~ 이후로 계속하여 그 날 내가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했다 they have turned from me to worship idols. Now they are turning away from you. 그들은 나를 버려왔다 우상을 숭배하기위해서 이제 그들은 나를 외면하고 있다 =>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한 그 날 이후부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위해서 나를 버렸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 9) Do everything () they ask, but warn them 모든 것을 하라 그들이 요구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라 and tell them how a king will treat them.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왕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라, 그러나 그들에게 왕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할지를 경고하며 말하라. * Do everything 다음의 ()에 they ask를 받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 () tell them how a king will treat them = 4형식 문장의 주어(you)가 생략된 명령문이다. S V IO(에게) DO(를, 을)=주어가 IO에게 DO를 말하다 => 그들에게 how 이하를 말하라.

STUDY & THOUGH

-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Samuel)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진정성 키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아론(Aaron)의 행동(출32:1-6)과는 다르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려 오신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이시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같은 인간의 왕을 구했다. 뿌리 깊은 악의 성향이다.
Are we also not satisfied with God alone, and continue to pursue other visual things?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그리스도인의 문안(문1:1-3)찬344장

그리스도인의 문안이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 입니까? 첫째, 오직 교회 지체에게 보내는 문안입니다(1). 감옥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레몬과 자매들에게 문안할 때 교회 안의 지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성부와 성자가 문안의 원천입니다(2). 문안의 요점인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 축원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은혜 중심한 문안입니다(3). 세상에는 인간적 평안과 평강을 기원하니 뿌리가 풀린 나무처럼 무의미하게 귀만 좋게 하는데 주력하나 사도의 문안은 은혜의 반석에서 솟아 나온 생수 같은 것으로서 환경을 초월해 임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은혜 중심한 평강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화 사도는 왜 감사하는가?(문1:1-6)찬319장

육중서신 중 하나인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정중한 문안으로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인사지만 구속의 다른 형태의 접촉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사도는 감사로 나아갔습니까? 첫째, 기본신앙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4). 그의 믿음과 사랑이 견고했기 때문에 사도는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다. 둘째, 그 교제로 선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5). 여기 선이란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선과 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6). 그리스도의 형상인 의인신이 생활에 나타난 것이 사도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로 충만합니다.

수 사도의 위로(딤후1:7)찬484장

감옥의 난관 속에서도 사도는 하늘의 위로를 맛보았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교회의 평강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 부흥은 바로 이 평강이 지배함이 나타납니다. 둘째, 성도의 사랑이 위로를 주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주고받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것처럼 사도는 환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하며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형선고를 받는 큰 환난에서도 큰 위로를 받은 것은 그 속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위로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부흥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하며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형선고를 받는 큰 환난에서도 큰 위로를 받은 것은 그 속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위로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부흥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목 사도의 열심(문1:8-10)찬355장

사도 바울의 말년 삶은 한결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중에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그는 겸손했습니다(8-9). 평령보다 사랑의 권면으로 나아갔습니다. 웅변보다 침묵이 금이란 말처럼 겸손이 앞서고 이기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둘째, 그는 갇힌 부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라 일했습니다(9). 환난 날에 주를 찾기도 주님은 여전히 놀랍게 일하십니다. 풍부와 빈궁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자족함을 누렸습니다. 셋째,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자기 아들처럼 되게 했습니다(10). 제자훈련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종 된 변화된 사람을 만들었기에 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 열심을 구합니다.

금 사도의 품위(딤후1:11-14)찬409장

사도는 모든 관계에 덕을 세움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첫째, 오네시모를 자기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11-12).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세웠습니다. 둘째,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덕 세움으로 이루었습니다(13). 빌레몬의 동의를 얻어 오네

시모를 자기 사역에 일하게 했습니다. 사도의 권위는 이런 질서를 지켜갈 때 열매를 나타냅니다. 셋째, 모든 일을 자원으로 하게했습니다(14). 성령이 오시면 그 은혜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원의 마음으로 하도록 눈을 뜨게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으니 그의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자로 삼시다.

토 사도의 권면(딤후1:15-19)찬175장

사도는 과거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간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라고 권합니다. 어떻게 막힌 담이 헐어집니까? 첫째,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했습니다(16). 주종 관계에서 원수 관계로 발전된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는 친구로 변합니다. 둘째, 바울이 책임지는 마음을 가졌기 때

문입니다(18). 그러기에 사도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뜨거운 형제애를 가졌습니다. 셋째, 빛진 것을 기억나게 하여(19)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사랑의 권면은 교회를 세우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구체적으로 지키게 하려는 일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로 자라납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인/터/뷰

이영희 목사 (TPPM 대표)

교도소 채플린으로 문서선교 꽃 피운다

본지 “교도소 선교칼럼” 필자 이영희 목사가 지난 1일 본지를 방문했다. 뉴욕 포트워싱턴의 미국연합감리교회 집회차 뉴욕에 온 이영희 목사는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TPPM) 대표이며 2003년부터 콜로라도 주에 있는 아담스카운티 교도소 채플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영희 목사는 “선교의 꽃”이라는 제목의 책들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데, 이 책은 미국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선교의 꽃” 10편은 본지에 게재했던 칼럼들과 “승리의 행진” 2편을 모은 것이다.

상당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 목사는 이 책을 출판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1년 전 꿈에서 2명의 젊은 여성 사역자들이 교도소 목사가 되는 꿈을 꾸면서, 그중 알고 있던 한 사람이 교도소 채플린에 대한 책이 있는지 물었다

못했는데, 꿈에서 깨어난 후 하나님께 여쭙보니, “영적 리더들을 도울 책을 쓰거라, 이미 많은 자료를 네게 주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동안 재소자들을 위한 치유 사역과 그 사역을 위한 상담 자료들은

고통의 방’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에 치유와 평화를 찾는 기도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고통의 방’이 ‘축복의 방’(도표)이 된다고 소개했다.

2005년에 설립된 TPPM는 그동안 25만권도 넘는 책들과 비디오들을 미 전역의 교도소, 형무소, 노숙자 보호소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그동안 썼던 책들은 모두 영어로 쓰여졌는데 한글 번역자를 붙여주셔서 한국어판이 나오고, 또 스페인어, 이란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미 전역에 교도소로 보내고 있다. 물론 한국어판은 한국의 교도소

사는 3월 30일부터 사흘간 뉴욕 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도 세미나와 집회 일정이 잡혀있다.

25분짜리 영상 애니메이션도 제작 중이다. “예수님과 걷는 길” 5편이 영어로 제작됐는데, 한국어로도 제작되며, 치유 세미나 “승리의 행진” 영상도 제작 중이다. 이 영상은 한국어로 먼저 제작되고 영어로 제작된다.

이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전에는 이런 선교는 상상도 못했다. 재소자들의 치유와 변화를 보면서 교도소 내에서만 사역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 주셔서 세미나, 집회 등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영희 목사는 매주 8회의 예배 인도와 여자들 방에서 개인상담 혹은 그룹상담을 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또 하셨네요’ 저절로 고백이 나온다고 말했다.

▲연락처: yonghui.mcdonald@gmail.com (유원정 기자)

수감자들의 회심 이야기 담은 10여 편 시리즈로 발간 내적치유 가이드 최근 발간... 한인교회서 세미나 인도

고 한다. 이 목사는 지난 20년간 교도소 사역을 했지만 교도소 사역에 대한 책이 있는지 혹은 책을 쓴다든지 하는 생각을 하지

이미 있었고 다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 묶는 일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가이드북에서 이영희 목사는 ‘고통의 방’을 소개하며 ‘

로도 보내진다. 한국 지부는 2013년부터 이본 목사를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다. 5년 전부터 한인 교계와도 연결을 갖고 있다는 이영희 목



세이언 제8차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이언을 불법단체, 이단으로 조작” 엄중대응

세이언 제 8차 정기총회, 성명서 발표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회장 김순관 목사, 이하 세이언) 제 8차 정기총회가 “진실한 증인(Truthful witness, 잠14:25)”이란 주제로 지난 11일 오후 8시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텍사스 주 달라스에 소재한 세미한교회(이은상 목사)에서 개최됐다.

2019년 3월 현재 전체 9개국(미국·한국·호주·영국·콜롬비아·멕시코·독일·중국·이스라엘) 54명의 회원 중 위임포함 8개국(미국·한국·호주·멕시코·중국·콜롬비아·영국·독일)에

서 약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이언 상임위원인 조 남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최예배는 김광석 목사(이단대책위원장)의 기도와 김성일 목사(목회자자문위원)의 성경봉독, 김순관 목사의 설교, 사무총장 한선희 목사의 광고에 이어 박형택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세이언 대표회장인 김순관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 문으로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더할 수 없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단체가 이단을 해체시키려

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일부 이단연구자들이 이단과 문제단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고, 이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주 세이언이 불법단체라고 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또 어느 수상한 단체가 미주 세이언은 이단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미주 세이언이라는 단체는 없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라는 단체로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돼있는 합법적인 단체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다. 또 우리 삼위일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도 안되는 조작을 하는 자들도 있다”면서 “우리 모두는 세이언의 당당한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의 회원들과 우

리 단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역설했다.

세이언은 개최예배에 이어 이튿날인 12일 오전에 회무처리를 열고 올해 임기가 종료된 사무총장과 재무국장을 연임시켰으며, 각 국에 지부장을 세워 지역을 대표하도록 했다.

회무처리 후 오후엔 남침례신학대학교 방문과 달라스 전 통 마차 관광, 저녁에 이인규 장로의 “은혜로교회 신목주의 이단성”을 시작으로, 주금돈 목사의 ‘성경을 바로 알면 이단이 보인다’, 정명철 목사의 ‘몬타누스주의를 통해 본 혁명적 천년 왕국 운동들’, 박형택 목사의 ‘성막에 대한 연구’ 등 세미나가 있었고, 13일 저녁에 폐회예배와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끝냈다.

한편 2020년 정기총회 장소는 잠정적으로 중국으로 내정했으며, 진용을 새롭게 정비하고 갖추기로 하고, 한기총에서 변승우를 풀어주려고 했던 일과 세이언을 불법단체와 이단으로 조작하며 이단연구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대응을 하기 위한 성명서를 작성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제8차 정기총회를 은혜롭게 마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총회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세이언의 삼위일체관은 본질로는 한 하나님이고 위격으로는 상호 구별되고 상호 교류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믿는다.

2. 박형택 목사의 사과문은 개인의 의견일 뿐 세이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므로 박형택 목사에게 엄중한 문책을 하고, 이 사과문을 악용하여 언론에 세이언을 매도한 진용식 목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진용식 목사의 매우 위험한 요한계시록 강해와 구원론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재 촉구한다.

4. 한국의 대표적인 9개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변승우를 이단에서 해제한 한기총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5. 세이언은 설립취지에 맞게, 이단연구자들을 공격하고 이단을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19년 3월 13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

합회 International Korean Christian Coalition Against Heresy 대표회장 김순관 목사 외 회원 일동 (기사제공: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노회장 재규목사, 부노회장 이철목사

(9면에서 계속) 고시부는 사업보고를 통해 △목사고시 합격 정진호 △목사후보생 고시 합격 홍우석 △장로고시 합격 김태광, 이귀복, 이강훈 등을 보고했다.

또 △조영천 목사의 PCA동남부노회로의 이명 허락 △샤이엔 주님의교회 임영훈 목사가 청원한 교회가입 청원은 해당교회가 선교대상 지역임을 고려해 세례교인 15명이 되지 않지만 허락 △벽스카운티장로교회(김종운 목사) 정진호 전도사의 목사안수 청원은 고시부의 고시합격 후 허락 △영생장로교회(백운영 목사) 장로 8명 증원 청원 허락 △뉴저지 벨엘장로교회(김지훈 목사) 장로 3명 피택 청원 허락 등을 다뤘다. (기사제공: 필라노회)

이민 교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태식 목사의 성경목회 세미나

일시 및 장소

LA 제2회

2019.3.28(목) 오전10시 ~ 3.30(토) 오후6시까지

가든스위트호텔 리조트 Garden Suite Hotel & Resort (681 South Western Avenue LA, CA 90005)

LA 제3회

2019.4.1(월) 오전10시 ~ 4.3(수) 오후6시까지

찬양교회 Praise Church of the Nazarene (3401 West 3rd street LA, CA 90020)

문의 | (박성하 목사) 010-7600-3397 / 카카오톡D cheo0920

※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는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찬양교회 | 담임 김성대 목사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 Southern Nazarene University 종교학과 졸업
· 찬양교회 담임
· 미주 한인 나사렛 성결교회 총연합회장

후원 | OC목사회, 남가주목사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 원로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외 각지역 교회협의회, 미주크리스천 여성방송인연합 찬양교회, 미주예수사랑교회 외 (일부 확인중)
미디어후원 |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위클리, 기독교일보,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헤럴드, CHTV 56.9 외

강사 | 전태식 목사

- 아바드성경 관주해설 저자
-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 CHTV크리스천헤럴드 서울방송위원
- CTS기독교TV 이사
- 순복음부흥사회 28, 29대 대표회장 역임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역임
- 한국교회연합 법인이사 역임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상임회장
-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교류협력위원장
- 사단법인 아바드재단 대표이사
- 순복음서훈진주초대교회 담임



Google YouTube NAVER D&M 전태식 목사 설교 검색